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淳

自力에의自覺(二)

個人의力

一

우리는 前回에 吾族更生의 唯一路가 過去의 無力한 生活에 對한 慚愧와 奮然히 自力에 自覺함에 잇는것을 말하엿고 이 慚愧와 自力의自覺이 업시는 永遠히 自由와 生命이 업슬것을 絶叫하엿다

그러면 그自力이라는 力이 무엇인가 科學은 自然界의 모든 現象이 오직 力과 種種의 變態라고 말한다 日月의 出沒이나 四時의 變遷이나 風雨雷電이나 生物의 生長이나 모든 力이다 또 社會學은 人類社會의 萬般現象이 모다 人類의 生理學的心理學的 力의 種種의 變態라고 가르친다 그럼으로 力이 잇는 곳에 光이 잇고 熱이 잇고 電磁氣가 잇고 音響이 잇고 生滅이 잇고 力이 잇는 곳에 組織이 잇고 進步가 잇고 更新과 革命이 잇다 力이 消滅되는 날에 自然과 人生은 消滅하고 마는 것이다 力이 不足한 人類社會에 沈滯가 잇고 衰頹가 잇고 敗亡이 잇는 것이어니와 한번 力이 發生하는 곳에 모든 沈滯는 狂瀾怒濤를 니르키어 浩浩蕩蕩한 量을 일우고 衰頹와 敗亡의 廢墟에도 新芽가 抽하고 新花가 發하야 光彩陸離한 陽春을 일우는 것이다 朝鮮이라는 空谷에 音響이 振動하고 朝鮮이라는 死海에 波濤가 洶湧하고 朝鮮이라는 落寞한 曠野에 百花가 爛熳하고 新生이 欣動하게 할것이 오직 力이다

二

그러면 그力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個人이다 汪洋한 長江大河가 平凡한 山谷의 一小泉에 根源하는것과 가치 一民族의 旺運이 또한 엇던 五尺短軀의 無名한 一個人에서 始하는 것이다 歷史의 方向은 엇던 天才的個人의 胸中에 비치하던 一閃光으로 된다하는 칼라일의 喝破는 眞理다 孔子가 아니엇던들 儒敎의 偉大한 勢力이 업섯슬것이오 孫文이 아니엇던들 中國의 革命은 엇지되엇슬지 모를것이며 레닌이 아니엇던들 露西亞가 今日과 가튼 方向을 取하엿스리라고 判斷하지못하엿슬것이다 山에 ... 을 닷는 公子의 업슴을 어버려 보면 그자리에는 永遠히 金大의 大樹를 보지못할것이아닌가

三

今日의 自然科學의 發達의 根源은 베이컨의 歸納論理의 主唱에 잇다하며 말코니라는 伊太利天才가 아니더면 世上은 아즉 無線電信을 몰랏슬던지 모르고 ... 獨逸의 大帝國이 아니고도 ... 北米가 自由의 新邦을 建設할수가 잇섯슬가 ... 以外만 엇잇더라도 歐洲大戰亂의 運命은 다른 方向으로 轉換되엿슬는지 모르는 것이오 ... 은 避하엿슬는지 몰랏슬것이다 비록 그의 理想대로는 다못되엿다하더라도 故윌손大統領의 ...

四

以上의 個人의 理知力과 意志와 偉大한 힘을 말한것이어니와 個人의 感情의 힘도 적으면 一鄕, 크면 一國, 全天下의 歷史의 方向을 轉換식히는 偉大한 힘을 가진것이다 ... 一個人의 學說이 一世紀도 못되 ...

五

社會力은 곳個人力이다 個人은 무엇인가 ...

張吳軍에 改變된 八個旅도 響應

兵器와 軍費도 이미 充實 再擧準備進捗된 馮氏

馮玉祥氏의 總率한 國民軍의 現在 下北京에서 密議를 遂한다더라 兵力은 十萬이라고 稱하는바 今回 馮氏가 勞農側에서 持來한 多數의 兵器와 軍費 一千五百萬元으로써 張宗昌, 吳佩孚軍으로 改變된 國民軍의 八個旅와도 氣脈을 通하고 兵變을 惹起식히고 其機에 乘하야 大大的으로 逆襲에 移하려하는 計劃이 着着進行되야 馮氏代表와 廣東國民軍代表는 日日 ... 더라(北京廿四日發)

唐家灣署襲擊은 赤化團員所爲

二十四日 中國人暴徒가 中國市街上海唐家灣警察署를 襲擊한 事件에 關하야 判明한바에 依하면 右暴徒의 大多數는 中國赤化團員及上海勞働組合團員인 實業勞働者等이라더라(上海廿四日發)

엿다는데 中國側에서는 廣州方面으로 退하엿다고 한다더라(上海廿五日發)

戰事鎭定後 國民豫備會議

蔣氏廣東政府의 通告

蔣介石氏는 廣東政府에 各省戰事鎭定을 俟하야 國民豫備會議를 召集하고 國是를 解決하야 統一政府를 建設하고 對外的으로는 不平等條約廢除와 對內的으로는 從來의 積弊를 除하려는 意見을 述한바 此促進方法으로 十二個條를 通告하엿다더라(廣東廿四日發)

張作霖氏의 時局支配請電

舊議員等이 準備中

張作霖氏는 南方軍事問題及時局에 關連하야 近近入關하기로 決定하엿는바 天津에서는 歡迎을 準備中이라하며 天津의 舊國會議員을 中心으로 三百六十五名의 連名으로 張作霖氏에게 速히 北京에 入하야 中央時局을 支配하기를 要한다는 通告를 發하려고 準備中이라더라(北京二十五日發)

浙江問題終結

夏氏는 窮城에

杭州發電에 依하면 浙江獨立軍은 孫軍에게 徹底히 擊破되야 殘兵은 武裝解除를 當하고 夏超氏는 上海로 逃命한바 孫氏는 夏超氏의 罪는 不問하겟다고 聲明하엿스며 그 代表 夏令氏는 二十四日 杭州에 入城하야 自時로 戒嚴令을 布하엿는데 如斯히 浙江獨立騷動은 全然終結하엿다더라(東京電)

夏氏上海來說

浙江省長夏超氏의 行方은 아즉 判明치 아니한바 今日上海「타임스」紙의 所報에 依하면 夏超氏一行은 廿四日 英國汽船北京號로 上海에 到着하엿다더라

中東鐵會計公表

露大使에 要求

中東鐵道會計의 公開에 關하야 中東鐵道督辦의 同鐵道會計公開意見에 基하야 外交部는 勞農代理大使에게

一、中東鐵道會計部에 中國人職員을 參加식힐事

二、路中兩國委員이 奉票流通을 調查하게할事

三、年度末에 路中兩國理事는 出納決算을 公表할事

四、督辦은 隨時會計檢查를 할수잇는等事를 要求하엿다더라(北京廿五日發)

結婚年齡規定 婦女斷髮嚴禁

莫省長의 新令

莫惠德省長은 今回 左와 如한 新令을 發布하엿다더라(奉天廿五日發)

一、東三省內에서 結婚年齡을 男十八歲 女十六歲以上으로 定함

二、婦女子의 斷髮을 嚴禁함

錢鈔商賣中止

奉天側의 對日本要求

奉天票問題에 對하야는 本省에서의 訓令에 依하야 嚴重히 中國側에 交涉中인바 中國側態度는 頗히 强硬하야 二十三日갓튼 날은 雙方이 激論을 交하고 何等決定한바업시 말엇다 그러나 其後 中國側에서는 張作霖, 楊宇霆, 莫德惠, 王領欣伯氏等이 協議한 結果 二十五日午前十一時 王領欣伯氏는 吉田總領事를 非公式으로 訪問하고 今後 中國側의 公定市勢를 中止함에 依하야 日本側에서도 取引所의 錢鈔商賣를 中止하라고 申請하얏다더라(奉天廿五日發)

本溪煤鐵 工夫六百能業

겨우 鎭定되야

本溪湖煤鐵公司(大倉組經營)職工六百二十餘名은 二十三日午後三時 突然히 作業을 中止하고 宿舍에 歸하엿는바 原因은 勞働者頭目이 工夫를 毆打하기 때문에 全工夫가 此에 憤慨한것이며 一時는 大事에 至하려하엿스나 其會社側에서 工夫側을 鎭撫한 結果 二十四日부터 全部就業하엿다더라(奉天二十五日發)

法相에 建議

陪審法關係로 帝國辯護士會

帝國辯護士會는 二十日 理事會를 開하고 陪審法院施行準備에 關하야 左의 建議를 法相에게 提出하기로 決하고 二十五日午前十時 秋山, 長谷川等의 各理事가 林次官을 訪問한後 建議의 主旨를 說明하엿다더라

一、陪審法廷의 構造는 左와 如히 設置하기를 相當하다고 認함 (가)陪審法廷의 檢事席은 判事席보다 低하게 辯護人席과 同等의 高度로 하고 其位置는 適宜히 此를 定할事 (나)辯論席을 撤廢할事 (다)證人席은 陪審員席에 相對하고 且判事席, 檢事席, 辯護人席의 各席에 對하기 쉽도록 할事 (라)書記席은 判事席의 前階에 設置하고 且判事席보다 低하게 할事 (마)被告人席은 陪審員席, 辯護人席의 各席에 接近하게 設置할事

一、陪審法施行準備에 關하야서는 各地辯護士會에 對하야 具體的事由를 揭하야 諮問함이 相當하다고 認定함

一、陪審法施行準備에 關한 其他事項에 對하야서는 從來意見을 開陳하려함 右建議함

汎太平洋會議

第一回協議會

汎太平洋學術會議는 期日이 切迫함과 共히 參加歐米各國에서 代表者가 來日中인바 會議의 가장 主要한 者로서 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 「汎太平洋會議永久的組織에 關한 件」의 第一回協議가 되엿슨데 當日出席한 學者는 各國을 網羅한 斯界의 權威者十一名으로 此汎太平洋會議가 暫定的且適宜學術研究及國際親和에 貢獻할 會議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야 草案委員長으로 櫻井博士가 選되야 當日의 議題보다 먼저 今後의 會議에 中國, 露國의 二國을 會員으로서 承認할가 又永久的汎太平洋會議의 客으로 할가 櫻井博士提案의 草案을 適當하다 할것인가 그 與否를 審議하야서 十一月十日頃에 決定하기로 하엿다더라(東京電)

日中條約對策

外相에게 一任

中國의 日中條約改訂提議에 關하야 幣原外相은 二十六日의 閣議席上 中國의 提議文書竝從來의 計劃을 詳述하야 善後策을 考究한 結果 對策을 外相에게 一任하기로 되엿슨즉 外相은 一次北京政府의 意를 探索키 爲하야 芳澤公使에게 訓電을 發하기로 되엿스며 兩國의 諒解가 不成立하는 以上은 條約改訂交涉은 延期될수밧게 업다더라(東京電)

「資本主義國家와 接近하라는努力」

勞農露國中央問題와 ◇…黃金米國의批評

勞農露國의 共產黨의 「트로츠키」氏等 急進派의 領袖若干을 驅逐한것은 勞農當局이 確實히 他國의 有產階級政府와 諒解를 遂하라고 努力하는 것을 示한것이라고 米國에서는 一般이 解釋하며 特히 「필라델피아·파부릭·렛츠지아」等과 如한 保守的新聞까지가 「勞農共產黨의 現幹部首腦인 「스탈린」氏가 「適當한 時機에 勞農露西亞現在의 政治組織中 가장 缺乏한 統一制를 確立하야 責任의 所在를 明白히 하기를 期하여야 된다」고 한것은 注目에 値한다」고 論하얏더라

勞働制運動

一週五日의 有力團體反對

米國製造業者幹部의 議에 依하면 一週五日의 勞働制運動은 國內有力三十二團體가 最初로 反對하는바 一週五日의 勞働制는 結局生活費를 高騰식히고 生產高를 減少식힐것으로 如斯한 勞働制가 米國에 實行되면 米國은 益益歐洲로부터 經濟的猛襲에 威脅될따름이라더라(紐育廿五日發)

物價編定會議

日本도 代表出席

上海의 物價編定會議開催에 關하야 八月六日 中國政府에서 外交團 ...

朝鮮民族 更生의道【二九】

生氣振作—理想樹立 —更生確信—不斷努力

文學士 崔鉉培

第三章 民族的更生의原理

第一節 民族的生氣를振作하라

前節에서 論究한 結果 우리朝鮮民族의 衰弱症의 淵源이 明示되엿다 딸아 우리朝鮮民族의 衰弱症이 頑固不治의 先天的病이 아니오 그 病源이 比較的近代的인 同時에 그病根이 아즉 우리의 心靈에 깁히 박히지 아니하야서 한번 良方을 어들것 갓트면 얼마아니하여서 治療의 效果를 거둘수잇는것임을 알앗다 이에 우리民族이 다시 살아날 曙光과 希望이 잇는것이다

그러면 그良方이 무엇인가 大低 如何한 病을 勿論하고 할수잇스면 그病源을 根絶하는것이 그病의 豫防이 되는同時에 그 이미 걸린病의 治療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아모리 그病源이 明見되엇스며 또 그것을 除去할수가 잇다할지라도 그病勢를 딸아서는 반듯이 對症療法이 必要한일이 만타 이제 우리民族의 疾病인 衰弱症도 그病源을 除去함이 根本的이오 또 永久的治療及豫防이다 그러나 方今 患者의 容態가 그리한 迂遠한 處方으로서는 到底히 이미 發作하야 前進하는 病勢를 挫折할수가 업슬 境遇에 잇다 病勢를 딸아서 良藥을 더지는것이 良醫의 仁術이다 眞理는 平凡하다는 말과 가치 良藥이 반듯이 貴藥이 아니다 世俗에 「맘으로 난病은 맘으로 낫우어야 한다」는 말이 잇다 이 俗談이 正히 우리民族의 衰弱症의 良藥이 된다 하겟다 우리民族的衰弱症은 맘으로 난 병인즉 맘으로 낫우어야 할것이다 우리 朝鮮民族의 各自가 서로 이 衰弱症이란 一種의 病에 걸려잇슴을 覺然히 自覺하고, 蔚然히 沈滯한 生氣를 振作하며 萎靡한 意氣를 奮勵하야서 우리民族의 將來에 光明과 希望이 잇슴을 確信하고 모든 經綸과 모든 活動에 勇往邁進하여야 한다 이것이 現下의 朝鮮民族의 衰弱症에 對한 最上良方이다 적어도 나는 그러케 생각한다 이제 다시 이 良方을 註釋하고자 하노라

第一 우리 배달겨레의 各自가 衰弱症이란 一種의 病에 걸려서 呻吟하는 中에 잇슴을 渙然히 自覺하여야 한다

(一) 어떠한 病이든지 그病을 낫우랴면 먼저 그病을 알아야 한다 醫師가 患者의 病을 治療하랴면 그病이 무슨病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런한데 그病이 다만 醫師의 投藥으로만 낫아질 病일것 가트면 患者는 自己의 病에 對하야 全然沒覺하여도 無關하겟지마는 萬若 그러치 아니하야 그病을 治療하는데에 患者自身의 精神上修養이 必要할진데 病에 對한 自覺이 極히 必要하다 이제 朝鮮民族의 衰弱症은 一種의 맘에서 난 病이니 그 治療에 患者의 自覺이 必要한것은 勿論이다 이에 對하야 或 이러한 反駁이 나올는지 모른다 即 病이란것은 이저버려야 낫지 그것을 恒常 생각하고 잇스면 그病—더구나 맘의 病은 낫지아니하는 법이 아니냐 難者의 말은 올타 그러나 이는 이저버림(忘却)과 모름(不知不覺)을 混同한 論이다 이저버림은 이미 맘이 잇섯슴을 意味한다 이미 앎이 업시는 이저버릴것도 업는것이다 모름은 當初부터 맘이 업슴이니 이저버림과는 딴판이다 이를터면 미친사람이 自己가 미친줄을 모르고 작고 미친짓만 하는것은 모름(自覺이 업슴)이니 그병이 더욱 기퍼갈따름이오 神經衰弱者가 自己가 神經衰弱症에 걸린것을 自覺하고서 空氣조코 山水조흔 곳에 가서 다른 생각은 조곰도 아니하고 다만 閑散에 자미를 부치고 지낸다하면 이는 自己의 病을 이저버림이니 그病이 漸漸快差해갈것이다 그럼으로 難者의 論은 올키는 올치마는 나의 論을 反駁하는 論劍이 되지는 못한다

一瀉千里의勢로 新陣容을整齊

◇…勞働農民黨의內容

勞働農民黨第四回中央委員會는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 開會하고 諸問題를 協議한 結果

一、三輪書記長後任으로 細迫兼光氏가 就任하기로 됨

二、新加入한 全國水平社에서 四名의 中央委員을 擧하야 其中 下阪正英, 菱野正次, 大西遼太郎의 三名을 決定하고 一般側에서 上村進을 推하얏스며 目下交涉中인것은 大山郁夫氏等이요 顧問으로는 布施辰治氏로 確定함

三、名古屋의 製陶同盟에서 새로히 二名의 中央委員을 增員하기를 決定함

四、調查部長 金田壽彦 宣傳部長 淺沼稻次郎 組織部長 前川政一 氏가 就任

五、機關紙를 發行할事

等을 決議한後 支部承認의 件은 委員長乃至書記長一人 評議會一派의 四團體에 對한 排除에 關하야서는 現在의 形便으로 第三回中央委員會의 決議에 不觸하는 範圍內에서 此를 決定하기로 되엿스며 議會方面의 開拓은 調查部에 一任하고 地方支部會等의 情報에 依하야 總選擧의 準備를 하기로 되엿는바 同黨員으로서 當選이 確實하게 보이는 者는 福岡二名 香川二名 奈良一名 新潟二名 北海道一名 東京一名 他의 水平社 식혀 近近全國遊說大會를 開하야 總選擧準備와 一瀉千里로 具體的活動에 入하기로 하엿다더라(東京電)

中央委員會

農民組合 具體的活動協議

捲土重來의 新陣容을 樹立하고 勞農黨을 支持하겟다고 聲明한 農民組合製陶同盟에서는 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同黨事務所에 第四回中央委員會를 續行하고 左의 事項을 協議한바 即

一、四團體에 對한 門戶開放의 件

二、支部承認問題

三、全國水平社加入의 件

四、當大會開催의 件

五、總選擧準備着手의 件

等으로 一은 內務省의 監視의 眼이 잇슴으로 愼重한 態度를 取하고 二는 承認하기로 하엿는데 三은 參加의 參加에 依하야 增員할 條件이다 最后로 聲明書를 發表한바 大會는 來十二月十日頃에 開催할 豫定이라더라(東京電)

組合運動에 爲先全力

脫退三團協議

勞農黨을 脫會한 勞働組合總聯合 市電自治會外一團體는 廿五日午後二時半부터 鳥森自治會本部에 代表者會를 開하고 善後策을 協議한 結果 此際三團體로서는 政治運動에 沒頭치 말고 爲先組合運動에 全力을 注할 方針을 取함과 共히 今後의 政治運動에는 全國勞働組合政治部聯合會라는것을 組織하야 此로써 政治運動의 機關으로 하기로 하고 直時 그에 着手하기로 되얏스며 又二十六日에 勞農黨脫退의 理由를 聲明하기로 되얏다더라(東京電)

東洋人排斥案

巴奈馬大統領이 裁可 亞米利加의 排日反影?

先般 巴奈馬共和國議會에 日本人, 中國人, 印度人等의 東洋有色人種排斥法案이 提出되야 數日前議會를 通過하야 大統領은 二十三日 署名裁可하엿다는 公報에 接한 外務省에서는 善後措置를 研究中인바 大體 同國은 日本과는 無條約國으로 外交的抗議를 提出할 方法이 업서 勞心焦思中이다 外務省調查로는 約二千二百三十一名이 在留하는바 同法案中에는 明白히 日本人을 指摘하야 今後 日本人의 入國을 禁止하게 하는 點이 잇스며 巴奈馬共和國의 此擧에 出한것은 同國의 絕對優越權을 有하는 米國의 排日反影이라고도 볼수잇고 更히 米國의 勢力圈內의 隣國及南米에 傳播하는 危險도 잇슴으로 外務當局은 頗히 困難한 事情을 愼重히 考慮하야 適當한 措置를 講할 必要에 切迫되엿다더라(東京電)

西國皇帝 暗殺陰謀

疑問의爆發彈

確實한 報道에 依하면 去二十二日 西班牙皇帝는 歌舞會를 求景하기 爲하야 「따르고야」附近의 「떼·포롤라치유니바시닷드」에 到着하엿슬 時에 爆發彈이 破裂하야 附近의 商店의 窓硝子를 破壞하엿스나 死傷者는 업섯다하며 皇帝暗殺의 陰謀라고 觀測하더라(巴里廿五日發)

內閣讓渡前提로

憲本提携論者 京都에서 懇談?

內閣讓渡를 前提로한 本黨憲政提携論者인 渡邊千冬子는 近衛文麿公及床次總裁와 京都에서 重要會合을 開할듯이 推察된다더라(東京電)

阿片條約 年內에批准?

目下研究中

國際阿片會議에서 成立한 阿片條約批准準備에 就하야 關係各當局이 協議한 結果 日本은 速히 此를 實施키 爲하야 國內法을 規定하고 年內에 批准手續을 終할 豫定이며 右條約實施에 就하야 臺灣의 阿片專賣는 現狀대로 하고 關東州의 生阿片賣買에 就하야서는 特別히 規定을 制定하려고 目下研究中이라더라(東京電)

東京市長就任

西久保氏承諾

東京市長候補者의 交涉을 受한 西久保弘道氏는 二十六日朝八時 濱口內相을 通하야 畢竟承諾하엿다더라(東京電)

改正刑法起草

委員近近任命

江木法相은 近近改正刑法起草委員을 任命하야 立案에 着手식히기로 되엿는바 右는 來議會에 提出할수업다더라(東京電)

箕浦氏又召喚

松島事件으로

松島事件도 漸次終結을 見하는바 箕浦勝人氏는 大阪地方裁判所의 召喚에 依하야 二十五日午後九時十五分東京驛發列車로 下阪하엿다더라(東京電)

政本兩黨幹部

懇談會開催

二十六日夜 築地에서 政本兩黨에서 幹部領袖格十八人式이 會合하야 懇談會를 開催한다더라(東京電)

增肥獎勵補助

各道配定額

今年度肥料增施獎勵國庫補助金 二十萬圓의 各道에 對한 配定額은 左와 如히 查定되야 二十一日附로 各道에 指令이 發表되엿다더라

京畿道	一一、五〇〇圓
忠北	七、六〇〇
忠南	九、九五〇
全北	一七、五五〇
全南	三七、五〇〇
慶北	三一、五五〇
慶南	二七、七〇〇
黃海	一〇、三五〇
平南	九、二〇〇
平北	九、六五〇
江原	一〇、一五〇
咸南	一〇、一〇〇
咸北	一七、六五〇

朝鮮產炭不振

撫順炭輸入旺盛

近來 朝鮮內消費石炭은 朝鮮產充用普及及效率로 需要增加의 傾向을 示하야 漸次輸移入炭을 驅逐하엿스나 昨今 安州炭의 落盤, 鳳山炭의 浸水로 採炭減少 北鮮炭의 資金難及成興炭의 搬出不圓滑로 目下在庫가 겨우 三四百噸에 不過하고 特히 安州炭도 一日一貨車式을 搬出하며 鳳山炭도 三四車를 輸送할뿐으로 期待가 背馳되야 最大供給處인 鐵道局全部를 納炭中이나 그 需要의 約三分一에 不過한 狀態로 當局에서도 此復活에 對하야 苦心하고 有煙炭鑛合同의 成案이 잇스나 實現하기까지는 아즉도 時日이 要할 모양인데 이대로 推移하면 今年結氷期의 一般供給은 至難할뿐아니라 一面 輸入炭이 增頭하며 特히 最近 撫順炭輸入이 活況을 呈하야 本年一月로부터 十月中旬까지 此輸入數量은 二十三萬六百七十餘噸으로 昨年同期에 比하면 二千六百四十噸의 增加이라더라

肺疫牛發生과

警務局의通牒

鎭南浦에서 日本에 移出한 畜牛中 肺疫牛가 發生하엿기 때문에 移出牛의 檢疫就中肺疫補體結合試驗竝北朝鮮四道牛의 取扱에 關하야 二十五日 警務局에서 關係各道知事에게 左와 如한 通牒을 發하엿더라

一、肺疫補體結合試驗은 鎭南浦, 元山, 城津檢疫所에서 畜牛의 全部에 對하야 이를 行하고 仁川, 釜山檢疫所에서는 北朝鮮四道를 發하고 又는 經過하엿다고 認하는 畜牛에 對하야 此를 行할事

二、前項의 試驗은 畜牛의 解放期에 할것으로 近近適當한 時日에 此를 行할事 但 入檢當時 體溫이 高하며 其他注意를 要하는 畜牛가 有할時는 그 畜牛에 對하야 直時 此를 行하되 更히 前段의 好期에 行할事

三、北朝鮮四道를 發하고 又는 經過하엿다고 認하는 畜牛에 對하야는 解放할때 其角에 紫色(스탐프)等을 塗布하고 其他一見識別할 方法을 取할事

四、前項의 方法이 確定되는대로 그 要旨를 日鮮各檢疫所에 直報함과 共히 本府에 報告할事

繩叺品質 檢查統一

繩叺品質檢查統一을 計하기 爲한 繩叺檢查規則은 이미 總督府事務局의 手를 離하야 目下審議室에서 審議中인바 느저도 來月中에 議了하야 府令으로써 公布하고 明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內定하엿다 그리고 從來 各道에서 各各檢查合格한 玄米及大豆包裝의 一等品白米包裝의 二等品及雜穀用等外品의 標準叺三種을 本月中에 總督府에 提出식혀 檢查規則細則에 基하야 各道를 統一한 標準을 實物에 對하야 決定하기로 되엿는바 目下總督府에 送附한 者는 忠南北, 慶北, 全北, 慶南, 黃海의 六道로 其他는 全部今月中에 集合될 豫定이라더라

橫說竪說

◇日本의 九百三十四華族의 所有私生子數가 五百餘名이라는데, 이것이 華族生活의 反面이라고. 그 反面은 飮酒와 賭博일는지

◇高知縣中村町附近에는 數億의 蟻群이 大混戰을 開始하엿다는데, 이는 凶年의 前兆라하야, 人心이 戰戰

◇京城府協議員選擧期가 切迫함을 딸아, 所謂選擧運動이 激烈하여지는中

◇[illegible]

◇名稱이 協議員인 以上, 選擧도 協議的으로 하는것이, 妥當하겟지만은

◇그것이, 乃祖乃父의 亡國하든 根性인것은 알어야 한다

本報押收

十月二十六日附發行本報第二千二百五號는 記事中當局의 忌諱에 抵觸된바가 有하야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抵觸된 記事는 削除하고 號外로 發行頒布하얏삽기 玆에 謹告함

東亞日報社

朝鮮初有의大詩集

朝鮮 詩人選集

二十八文士의代表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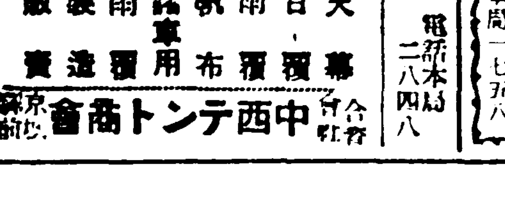
三百五十頁洋裝美本 定價壹圓八拾錢 郵料十六錢

詩人選集은 朝鮮사람으로서 朝鮮의 노래를 부르고 朝鮮의 情神을 읊조린 最初의 大詩集이다 朝鮮의 文藝運動은 어더며 最近의 詩壇傾向은 어더한가 現代를 表하야 말하는 大詩集이다 朝鮮의 廢墟를 開拓하며 朝鮮의 文藝를 創造하는 二十八詩壇大家의 作品中에서 제일優秀하고 美麗한 作品만 選集한것이다 그 奔放한 情熱과 淡泊한 思想은 實로 새여가는 朝鮮詩壇의 빗잇어며 精髓이다

總販賣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七十 匯東書館 振替京城七一五五番 電話光化門二一八番

土金石金銀買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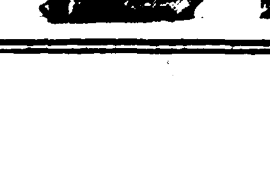
京城明治町 德力出張所



中西テント商會
天幕 日覆 雨覆 帆布 車用 布團 製造販賣
合資會社 中西テント商會 京城府
電話本局二八四八
型錄進呈

耳鼻咽喉科專門
坂井醫院
醫學博士 坂井清
入院御隨意
診察時間 午前自九時至正午 午後自三時至六時
電話 醫院本局一六四七 住宅本局一七五八
京城南大門通日本生命ビルヂング

淋疾根治丸
此淋疾根治丸은 男女勿論하고 百發百中하는 效能이 有하온대 其效能은 淋疾消渴, 膀胱炎, 尿道炎, 冷淋, 色淋, 血淋, 沙淋, 血淋, 偏淋性, 淋疾, 急慢性淋等에 하오며 永久한 淋疾이라도 此劑를 服用하시면 特效가 有하오니 試用하시오
定價 一劑 貳圓八十錢 半劑 壹圓五十錢 一週日分 壹圓五十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八番地
仁義堂大藥房 主 全義桓
振替口座七七五六番

船來機中
最古의信用과 最廣의愛用者가 定評이잇는 最良原動機
米國フェアバンクスモース製
石油發動機 Z ゼット

型錄進呈함
萬若御用中「マクネット」에 故障이 生起는 時에는 何時든지 無料로 取換하겟습니다
販賣店
群山榮町一四三番地 小副川商店
木浦榮町 松本商店機械部
順天本町 田中助四郎商店
[illegible] 三浦商店
大邱元町一丁目二〇番地 忽那商店大邱支店
釜山埋立新町一四番地 忽那商店本店

본대로 듯는대로 생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너저분한 이야기

요사이는 너무 생각나는대로는 문구가 만하서 자미가 좀 덜하다. 그래서 오늘은 들리는 소문들을 듯는대로 보는대로 적어보자.

◇

총소리가 사방에서 「총탕」하고 협박장이 이곳저곳에서 번적번적하는 뒤숭숭한 이때에 이 권총소리를 하고 안젓스니 독자가 이 필자를 상상하기에 아마 요망도 스럽겟지만은 실상 「망측한」 이라는 문구가 이러한 때에 더욱 자미가 잇는 것이다。

◇

최근에 동경시장(東京市長)이 사직을 하엿는데 통계(統計)긔자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재직일수(在職日數)가 전후 구십일인데 출근일수(出勤日數)는 겨우 삼십이일간 이라고 일급은 년봉의 비례로 따지오천팔백삼십사원인데 그동안 날삭으로 환산하니 일급일백팔십이원이라고 한다。 방금 유다르게 차우는 일본의 래년도총예산 십칠억만원중에 이 따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도 좀 들어보앗스면 조켓다。

◇

동경 어떤 대관의 귀부인에게서는 여러 귀부인들을 초대하야 잔치를 비무릇햇는데 그석차는 그귀부인들의 남편되는 사람의 디위와 관작을 따라서 차리엿다고 하야 이야기 거리가 되엿다 한다。 당연한듯하고도 당연하지 안으니까 이야기가 될밧게 업다。

◇

녀필종부(女必從夫)라는 말은 녯날도덕에서 울어나온 인습인 즐만알앗더니 현대에서도 빗다르게 「녀필종부」의 해석을 실행하는 모양이다。

◇

경성부에서는 오는 삼십일일에 성대한 락성식을 거행하려고 가진준비를 다하야 길거리에는 약시약시하고 골목에는 이러커러하고 무엇에 무엇을 하고 풍성풍성하게 떠드는 모양이다。

◇

그런데 포목대신에 총소리가 이러나고 깃발대신으로 협박장이 날리게 되니 마야부윤의 신수도 어지간히 조치못한 모양이다。 녯날경찰부장의 인연이 잇섯던것이야 아니겟지만은 곰곰생각하면 엇재 익살갓기도 하다 면하다。

頻發하는 銃聲裏에 簇出하는 脅迫狀

典當舖를 襲擊하고 拳銃으로 主人射殺

市內大路邊에서 突發

재작야시내대로변에 권총청년이 돌현 면당포를 습격하야 주인을 죽이고 도망

불과 두어달안에 동소문(東小門) 파출소습격사건을 비롯하야 안성(安城) 리천(利川)사건이 생기여 범인테포에 활동하는 경관의 몰샐틈업는 경계망이 더욱 엄중하여가는 재작일 초저녁에 교통이 번잡한 동관에서 또 권총사건이 발생되엿다 이십오일밤 일곱시이십분부터 이십오분 경사지에 수은동(授恩洞)일백오십구번디 면당포대성호(大成號)에 엇던 청년이 드러 열린대문을 미러저치고 드러가서 맛춤 방안에 호을로 안저잇는 주인 전긔영(全基榮)(三五)에게 운동금을 청구하다가 불응한다고 가지고 가든 권총을 발사하야 단한방에 전긔영의 심장을 맛치어 현당에서 즉사케하고 그만 몸을 숨기어 버렷더라

(최근에 빈발하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하야는 당국으로부터 게재금지의 명령을 바덧슴으로 금지된 범위에서 대강을 보도함)

銃聲은 夕飯刹那 砲煙에 幽靈가치

—저녁밥을 두번드자 피밍장한총소리 연긔중에 유령가치 어듸로 살아도주—

發射도 瞬間 逃走도 閃忽

죽은 전긔영은 청진동(淸進洞)백사십일번디에 집을 두고 전긔영 업하는 수은동 집은 그 동생의 영외 소유로 대문안 방한간을 비려 가지고 면당포영업을 하던 터로 사건이 생기기 한 이분 전까지 그 동생인 영과 사촌매부 뎡모(鄭某)와 가치 이야기를 하다가 뎡모는 삼남탕을 사다 먹고 자긔집으로 가고 그 동생은 자긔 안방으로 드러가 저녁상을 밧고 두어술을 떠먹엇을 때에 총소리가 남으로 뛰여나가 보니 방안에는 화약냄새가 코를 찌르고 자긔 형은 피를 흘리며 업허려 잇슴으로 즉시 대문밧갓으로 뛰여나와 그 압문 목귀(文模上)의 사랑을 부르며 즉시 종로서로 뎐화를 하엿는데 종로서에서 뎐화를 바닷슬 때는 곳 일곱시이십오분 이엇다고 하니 불과 그 사이 십오분 내에 그러한 범행이 연행되엿든 모양이라고 관측하더라

事變나든 前後

돌변 도무서운 돌변

이십오일오후일곱시이십오분에 시내수은동(授恩洞)일백오십구번디대성호(大成號)면당포에 권총청년이 돌입하야 전긔영(全基榮)(三五)을 네번에 사살하고 다라낫다함은 별항과 갓거니와 동사건이 돌발한지 오분이 못되여 맛츰 그부근을 지내든 본사긔자가 현장으로 달려갓슬때에는 피해자의 친족들이 방금 사실을 당하엿다는 전긔영의 시톄를 나붓두덥고 범벅얼벅어 엇쩔줄을 모르고 잇든 그안에 살긔가 등등하야 달려드는 경찰로서 가득차고 밧게는 사복형사와 긔마경관며까지 출동하야 그집의 출입을 일데엄금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야 동부근일대는 맛치 완연히 계엄상태로 살긔충텬하엿는데 선혈이 림리한 방안에는 피비린내로 차고 그를 둘러싼 부근일대까지 음산하엿더라

嚴重配置

三十分遲延

◇종로고등계주임담◇

별항권총사건에 대하야 삼륜(三輪)종로서고등계주임의 말을 듯건대 「실상은 당일밤 여덜시부터 서원들을 모하가지고 훈련겸 미행(微行)을 개시하기로 하얏든 것인데 약 삼십분 전에 그와 가튼 사건이 발생하얏습니다 그러 보신바와가치 돌발즉시로 활동을 한 결과 열한시반경에 일으러서 범인과 모습이 가튼 사람을 다려다 오늘아침에 일으기까지 밤을 새워가며 취조를 해보앗스나 그는 관계업는 것으로 판명되엿스며 아직 범인의 종적은 몰으겟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여섯시부터는 활동방법을 고처가지고 활동을 게속중입니다」라고 하더라

六十餘名富豪집에 正私服巡査를 配置

날라드는 협박장에 눈코못뜨는 본뎡서 부호륙십여명집에 정사복순사를배치

本町警察의 特別搜索班

시내수은동(授恩洞)에서 재작일밤에 권총사건이 돌발되엿슴으로 시내각경찰서에서는 눈코뜰결을이 업시 대활동을 개시하엿는데 관내부호와 은행이 만히잇는 본뎡(本町)경찰서에서는 작이십륙일 오전 여덜시부터 대화뎐(大和田)고등계주임이 부하를 소집하야 비밀회의를 열고 경계방침을 지휘하엿는데 소관다옥뎡(茶屋町)각부호의 집을 비롯하야 각은행 징문에까지 약륙십여처에 사복정복순사를 세워 엄중한 경계를 하는중이더라

府外에도 脅迫狀

재작이십오일 오전아홉시경에 고양군 숭인면 룡두리(高陽郡崇仁面龍頭里) 함명긔(咸命基)의 집에 다수한 금품을 숭인면 공동묘디로 갓다노흐라는 청량리(淸涼里)우편소의 소인이 마진 협박장이 또한 드러와서 소관 동대문서에서는 목하 그출처를 조사중이라는데 그협박장 표긔에는 발신인이 양주군(楊州郡)귀이면 독동 장한순(張漢淳)이라 씨엿스나 양주군에는 귀이면이라는 면이 업슴으로 장한순이라는 일홈은 전연 가명인듯하다더라

市內에도 脅迫狀

시내권농동(勸農洞)일백팔십칠번디 부호 김성권(金成權)씨의 집에는 지난이십이일에 시내광화문우편국의 소인이 마진 봉함서신으로 발신인의 일홈은 대한민국림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라하엿스며 내용은 ○○○○으로 돈오만원을 대공하라는 것이엿섯다더라

現場의 彈丸이 唯一한 證據品

—현당에떨어진탄환이유일증거 권총은자동구련발인듯하다고—

拳銃은 自働式九連發

현장의 증거품으로는 탄환껍질하나를 발견하엿슬뿐인데 그탄환은 작일아츰 종로경찰서에서 동(東)경찰부고등과장이하각서 간부가 모히여 검사한 결과 「모젤」권총탄환갓기도하나 「부로우닝」이호구련발권총 자동식의 탄환으로 판명되엿는데 KN이라는 글자가 색이여 잇섯더라

號外의 號外지 發行

십일월이십륙일부 이천이백오호본지는 당국의 긔휘로 인하야 압수를 당하엿고 시내수은동(授恩洞)권총사건이 발생되자 곳 호외를 발행하엿스나 또한 압수를 당하엿슴으로 재차 호외를 발행하엿습니다

韓建團送局

명이십팔일에

긔보=한건단(韓建團)사건범인 김현뎡(金玄貞)외네사람은 그동안 시내본뎡(本町)경찰서 사법계에서 취조를 밧는중인데 작이십륙일에 이르러 일단락을 지은 모양이며 명이십팔일중에는 검사국으로 송치될 모양이더라

國境警備狀況

—함경남북도와평북의국경일대 경관본영이삼백여개소나되여—

配置警官二千四百

총독부경무국에서 조사한지난구월말일외지의국경삼도(三道)경찰상황을보면 경찰서가이십구 파출소가여덜 가일백구십 출당소가칠십오개소로 총계삼백이처라하며 경관수는 일본인일천칠백오십구명 조선인륙백오십오명이라는데 자세한내용은아래와갓더라

◇咸南▲警察署五▲駐在所四十五▲出張所二 計五十二處▲警察官日本人二百五十七名朝鮮人九十八名

◇平北▲警察署十三▲派出所七▲駐在所八十五▲出張所六十二▲計一百六十七處▲警察官日本人一千六十一名朝鮮人三百二十九名

◇咸北▲警察署十一▲派出所一▲駐在所六十▲出張所十一 計八十三▲警察官日本人四百二十一名朝鮮人二百二十八名

典當舖를 中心으로 嫌疑者大檢擧

—뎐당포부근에지나든사람까지 닥치는대로검거하엿스나실패—

取調結果는 徒勞虛動

별항과가치 급보를 접한 이래 대활동을 개시한 경찰은 일선 사건발생당일아침부터 사건이 발생하든 전까지 그집에 출입한 사람들이며 잡히엇든 뎐당을 찻거간 사람들이며 사건발생당시에 그근방에 잇든 사람들을 일일히 취조한 결과 과연 현당으로부터 세명의 관게 혐의를 가진 사람을 다려다 취조를 하며 동아홉시삼십분경에 일으러서 현당근방으로 룡행하든 소매에 피흔적이 잇는 사십가량의 누런외투입은 사람을 다려다가 다시 취조를 한 결과 그흔적은 피가 아니엇든 것이 판명되엇고 다시 그범인과 모습이 흡사한 이십삼사세의 청년한명을 다려다가 극비밀리에서 밤을 새워가며 취조하엿스나 모다 진범인이 안이엿슴으로 작이십륙일 아침에 일으러서 여섯명을 모다 돌녀보내고 그중 두명은 오전까지도 오히려 취조중이엿섯는데 진범인의 종적은 전연히 미궁에 들어 알수업는 모양이라더라

內外面二隊로 警戒와 搜索

—경계수색은 각각내외두반으로 동서대문경찰서에서 가택수색—

東西兩署의 家宅搜索

재작이십오일 오후일곱시이십오분 시내수은동(授恩洞)권총사건이 니러난 이후로 시내동대문서에서는 밤을 새여 물샐틈도 업는 텬동갓흔 경계를 하고 나서 이십륙일 새벽부터는 외면수사반(外面搜査班)외에 내면수사반(內面搜査班)을 조직하여 가지고 관내각요소에 외면수사대를 배치하고 엄중한 경계를 하게 하는 동시에 사복한 내면수사대로는 관내각처에 가택수색을 하야 용의자(容疑者)를 속속검속취조중이라는데 다리여관계로 동서관내의 이서(以西)방면에 더욱 주력을 긔우리고 범인의 근거디를 탐색중이며 시내서대문서에서도 이십륙일 새벽부터는 정사복경관으로 내외면수사대(內外面搜査隊)를 조직하여 가지고 역시 그방법으로 경게수색케하는중이더라

한명만잡으면 모든사건이알아질듯

道李刑事課長談

경찰부리(李)형사과장은 「두어달반동안에 그러케 사건이 여기저기로 련환되여서는 우리의 면목이 업서외다 나라도 두어군데 총을 맛즈면서도 어떠케하여서던지 사건의 단서를 잡지 안으면 안이되겟소이다 근래에 경찰의 행동이 긔민하여짐에 따라 범인의 솜씨와 범행도 매우 민첩하게 되엿슴으로 테포에 매우 힘이드는 모양이나 범인한사람만 잡으면 동소문사건이며 안성리천사건의 범인도 판명이 될자신이 잇사외다 리천사건을 수색할때에도 이십명가량의 유력한 경관이 힘을 다하야 로심초사한 것이 수포로 도라가고 마니 속이 상해서 못견듸겟소」라고 하더라

海路를 大警戒

仁川署의 昨今活動

인천경찰서에서는 리천(利川)권총사건이래 경게가 자못 엄중하던터이러니 재작일밤 경성수은동(授恩洞)사건이 또다시 돌발하자 동서에서는 즉시 고등게(高等係)와 사법게(司法係)원의 총출동으로 경인선(京仁線)연선이며 해도(海路)긔타요소에 비상선을 버리고 맛치 물부위샐틈업시 경게를 하는중임으로 인천시내의 공긔는 비상히 긴장한 상태이라더라 (인천)

屍體는 昨日解剖

피살시톄는해부하기로작뎡

小山博士의 執刀로 中野檢事立會

전긔피해자는 해부에 부치기로 하야 작이십륙일 오전 총독부의원에서 소산(小山)박사의 집도(執刀)아래 중야(中野)검사의 립회로 위선 그가슴에 박힌 탄환을 빼내고 해부에 착수하엿더라

胸部를 命中

말한마듸못하고 참사

文醫師의 檢診談

피해자를 진단한 덕자영병원의 의사 문목규(文穆奎)씨는 「커녁을 막 먹은 일곱시사십분 경에 엇던 청년이 뛰여드러와 손을 쇠려 내다 십히 할으로 떠려 갓더니 뎐당잡은 물건가래 보히는 신문지로 싼 덩어리가 노혀 잇는 엽헤 피를 흘리며 넘어졋섯는데 탄알은 한방으로 데오륵골로부터 두륵세차메돌」가량되는 곳에 드러가 백혓슴으로 「액」소리를 질를새도 업시 죽엇겟지오」라고 하더라

中野檢事出動

현장에출장하엿든중야검사 종로에이르러수색방침협의

搜索方針을 鳩首協議

별항사건에 대하야 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서는 당야에 중야(中野)차석검사가 식산(植山)서긔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 검시를 하엿스나 어두운 밤이엇슴으로 모든것이 불분명하야 작이십륙일 오전에 또다시 종로서에는 위선 수색본부인 종로서에 들니어 금후의 수색방침에 대하야 여러가지 타합과 지휘가 잇슨후 현장을 더자세히 조사하고저 수은동으로 향하엿는데 동검사는 「증거품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슴에 박힌 탄환과 그아래 떠러진 탄환껍질 뿐인데 그 탄환껍질에는 (KN)이라는 영어글자가 잇슬뿐으로 그것이 유일한 증거품이며 또한 이사건을 가장처음 발견한 학생의 증언이 무엇보다도 유력한 재료라」고 하더라

再昨日曉頭에 體府洞에도 突現

권총가진장정한명이낫타나

韓富豪를 脅迫하다 潛跡

수은동(授恩洞)권총사건이 이러난 이십오일 오전네시반경에 시내톄부동(體府洞)일백이십구번디 부호 한승호(韓昇鎬)의 집에도 권총청년이 담을 뛰여넘어드러와서 그의 커를 깨워 일으키고 운동금을 청구하엿스나 금고의 쇠를 그의 남편이 가지고 잇다고 하야 그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리엿다는데 범인의 계통은 아즉 미상하다하며 그종적은 아즉 묘연하다더라

◇寫眞說明◇

(上)피해자전긔영(下)사건발생의현당과검사의검광경 ‖재작야수은동에서‖

朝鮮蹴球團 連戰連勝

水戸高校와二試合 모다零으로快勝

日下日本遠征中에잇는우리朝鮮蹴球團一行이水戸로向하야出發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同團은水戸到着하자지난二十四日水戸高等學校와同校球場에서第一回戰을行한結果『쏠』一對零으로先勝하고다시二十五日午前十一時半부터繼續하야同校와同校球場에서第二回戰을擧行하야『쏠』四對零으로불만하게快勝하엿는데이날우리朝鮮軍의活躍은實로勇敢無雙하야終是水戸高校軍을壓迫하엿다因하야同團은去二十五日同地를出發하야廣島로向하엿더라(水戸二十五日發特電)

朝鮮蹴球團動靜 別項朝鮮蹴球團一行은二十五日東京에着하야同夜帝劇山本專務의招待로帝劇을觀覽하엿는데一行은二十六日午後七時半東京驛發列車로歸途에登하야廣島에들니어二十七八日까지試合을하고는곳그곳을出發하야朝鮮으로向하리라더라(二十六日發東京特電)

東京六大學리그

明大4法政3(第二回野球)廿五日午後二時半神宮球場에서開戰明大復歸

慶大5A立教3(第二回野球)廿五日午後一時長崎球場●慶大再勝

全朝鮮庭球大會

大阪每日京城支局主催今年全朝鮮庭球大會를本月三十一日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擧行한다고

腎氣不足 神經衰弱 完治

一生을安樂히지내라면 我中國에古有한歷史가昭詳함은勿論이고 世界的權威를發揮하야自古今來로功效가確的하바는 人所共知요朝鮮에 廣布한지 一年에無雙한歡迎을蒙하는바는試用諸位가證明하시며謝感狀과注文이輻湊에 通信이 還至故로 今에貴國文書記를 屬聘하고 一週年紀念券을奉呈하오니 安心하시고 自宅完治하시는此本妙法은即醫學之祖華陀先師의 家庭傳來秘方이는바 不問老少하고 一七日內로百發百中하는不可思議의可驚可喜할神効無雙한奇妙法이오니 四海僉彦은勿失此機하시고 通知하시면 永遠히 快樂健康하실 中鮮文詳細書를送呈함(但郵料를要함)

中國奉天省西塔大街三丁目 華源參 謹啓

木材 秋季大賣出

秋季建築好時期에際하야 下表의價格으로奉仕하려고大廉賣를斷行함

二分五厘板 一坪六十五錢其他 在庫豐富

京城府古市町二八 熊野商會

고무신은신용잇는지구표요

일년간신는신은 지구표고무신이요

견고한고무신은 지구표외에또업소

地球 商標

合資會社 朝鮮고무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電話本局二一四二番 振替京城七五七一番

急告

世昌靴를사랑하시는 滿天下諸位의健康을비오며 兼하와더욱將來에만흔同情을주시옵기바라옵나이다

近日에或者들이世昌洋靴店出張員이라詐稱하고地方各地로巡廻하면서諸位의耳目을眩惑하는奸商이有하다하오니一切見欺치마시옵소서

本店은元來高級洋靴만專門으로製作하는故로 地方出張員은絶對로派送치아니하옵나이다

本店에專有한商品은他店에서模寫하온것임으로 樣式은新鮮하오나實物은絶對로不同하옵니다

高級洋靴專門商 世昌洋靴店 主 梁世鎭

京城鐘路二丁目靑年會館前 電話(光)一○七三 振替(京)七六七八

校舍新築紀念學生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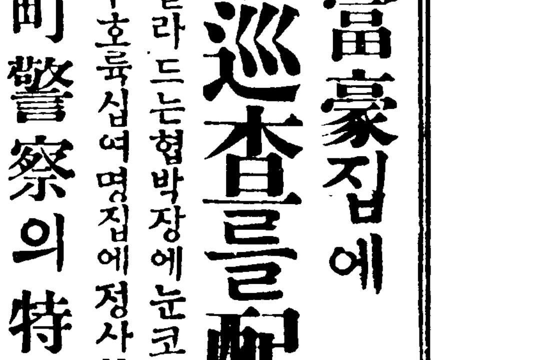
有爲한靑年아將來有望한現代的新職業인自働車界에進出하라

◆新學期開始◆ 十二月一日

●入學案內書進呈 ●京城府黃金町八番地(新築地)

公認 朝鮮自働車研究所

特許 漢城式稻扱機



漢城式稻扱機 定價一人用自十八圓至二十圓

本稻扱機는一日에二十五石乃至三十石을正租할수잇는最新作製品이오니一次試用하시옵소서

地方에는代理店募集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八六 漢城式稻扱機販賣所

ClibPDF - www.fastio.com

내외명사의가뎡【五】

춘풍이부는 리윤주씨와가뎡
현숙한그부인의말

이십여년을 하로가치교육에종사하여청년계에신망이만흔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학감(學監) 리윤주(李潤柱)([illegible])씨의가뎡은엇더한가그부인유승춘(柳承春)([illegible])녀사는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전아즉조선녀자들은 규중에잠이깁허드럿슬때에 녀자교육이필요한것을깨닷고 고향인평안북도박천을떠나 경성에올나와창성동(昌城洞)진명녀학교에 입학을하엿섯습니다

◇유부인은구한국시대에리갑씨리동휘씨와 함께 륙군사관으로 열혈애국자로 그일홈이전국에 떨치던유동열(柳東說)씨의고모가되심니다유부인의집안은 일직이신개화당으로자녀를 교육식히기에큰권과 수고를모다보지안는 모범뎍가뎡이엇습니다

◇진명녀학교를졸업한후유부인은당시에 일본동경녀자대학교를졸업한 리윤주씨와결혼한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오년전입니다 두분사이에는 딸사형뎨분이잇는데맛딸 정숙(正淑)과 둘재딸 경숙(京淑)([illegible])은 보통학교에다니며 셋재로부터남은아즉어립니다

◇가을바람이 산들산들부는어느날 저녁에계동 리윤주씨댁을방문하니유부인은 언제나녀학교에 다닛스랴하는듯이 머리를곱다랏케쪽지고 긴치마에행주치마를치고바누질을하고 게십니다 유부인은 학교시대부터점잔코 말거자가잇서 장래의현부인으로선생들사이에 희망이만엇다는것은엇던 동창생의말이거니와 파면언어와 태도에그현숙한을감출수가업더이다

◇『가정생활의취미가 엇더하십닛가?』하고뭇는긔자의말에

『남편은학교에가서 학생을가르치는일외에는 집에도라와 책을보며각금 친구가 차저오는일외에는 별로어데를 다니지아니합니다 남편이 술아니먹고 방탕하지 아니하며 안해에게 박하게 아니하면 녀자로서는만족이지요 더바랄것이무어이잇슴닛가 나는시집온후로 아들를낫지못하고 딸사형뎨를낫지마는 남편은거긔대해서 조곰이나 실힌빗을보이지아니합니다 학교에서도라오면 언제든지 아희들을무릅우에안치고 재롱을보고깁버합니다 나는이만하면 크게만족합니다』하고유순한우숨을띄움니다(사진은리윤주씨가뎡)

◇신랑신부◇

평양숭실전문학교(平壤崇實專門學校)재학중인김인욱(金仁旭)([illegible])군과평양 강유문(康愈文)씨의삼녀 평양숭의녀중학교(平壤崇義女中學校)졸업한모란(牧丹)([illegible])양과의혼례식을지난이십이일하오세시에부내창동교회안에서거행하엿다고합니다(평양)(사진은신랑신부)

삼주긔념 소년소녀웅변회

시내데부동에잇는 반도(半島)소년회에서는 삼주년긔념으로 오는십일월삼일 하오칠시에장곡천뎡 공회당(公會堂)에서데일회 전경성소년소녀웅변대회를개최한다는데 입장료는십전이라고합니다

공주녀청강연

공주(公州) 녀자긔독교청년회에서는 경성녀자긔독청년회총무유각경(兪珏卿)녀사가 공주에래도(來到)함을긔회로 지난이십삼일오후칠시에 당디레배당내에서 (우리조선녀자의갈길)이라는연뎨로 유각경녀사의강연이잇섯다고합니다(공주)

목포소년웅변금지

목포(木浦)로동소년회 주최로 소년웅변대회를 지난이십사일오후팔시에 목포칭년회에서개최하려하엿는데 당국에서금지함으로부득이중지하엿다고 합니다(목포)

고성소년소인극

경남고성소년회(固城)에서는 지난이십이일 오후팔시부터 고성칭년회에서 경영하는로동야학을위하야 고성칭년회관에소인극을 흥행하엿다고합니다(고성)

文壇是非

本欄은人身攻擊을除하고는어떠한意見에던지公開한다▲但投稿는簡單明瞭하게▲匿名도無妨하나本社에는住所姓名通寄 否則沒書

「소곰장이」를論함

金元燮

요사히是非거리도 되지안는 소곰쟁이로 因하야 是非가이러나興味를가지게하엿다 그것이創作인지 飜譯인지또는盜賊한것인지 우리는알수업다 그것은다만作者라하는 韓君의藝術的良心에맷길뿐이다 이제그是非가이러나니 맷해前어느紙上인지는 記憶지못하나 赤城이가베르렌의 검검옷업는잠이라는詩를살작盜賊해서 내엿다가 金億氏에게 독특히猾皮를당한일이생각난다 今般소곰쟁이에對하야選者이엿든 金億氏는그것이飜譯이건 創作이건소곰쟁이라는一篇이어린동무에게 害를주지아니하고만흔利益을 준以上나타난 結果인功利的意識으로보아서 그즛을 滋味업다할지면 정韓君을 그러케苛酷하게詰責할것은아니고 엇던便으로보면 寬恕할餘地가잇슬것이다 이것을가르처寬大한好意라고할는지몰으겟스나 大膽이러케解釋하는것이 矢치아니할가하며 選者엿든 人으로한마되를한다고하엿다

나는金億氏의 너머도지내친好意의解釋이란말에 不快한感을늣기지안을수업다 적어도文藝가時代人心에 反映을주는以上소곰생이가 兒童에게 만흔利益을 주엇다면 그야말로滿腔의 謝意를 表치안을수업다그러나 藝術的人格과 價値를잇지 混同할수 아잇슬것이가? 아모리韓君이그後에發表한만흔作品이 소곰생이以上의價値가잇다고하드래도 그것은別問題가아닌가생각한다 보담더나흔作品을創作할만한 素質이잇다하드라도ㅡ 設令남의作品을飜譯하거나 盜賊질해서發表해도 關係치안타는 그런어림업는말은 업슬것갓다

이제韓君이 作에對한顚末을發表하야 그것이어대까지든지飜譯이아니요 創作이라고言明하엿다 그러나 그것이우리에게참그럿코나 하는마음을갓게못하고 오히려乳臭를免치못한어린애수작인대야 엇지하랴? 前번虹波君이日文은 昨年度夏期學習帳에낫든것이요 韓君의그것은今春新年文藝號에 發表되엿스니 그것을 創作이라밋을수업다고 함에對하야韓君은다시그것을發表한것이 一九二二年十二月임에야 엇지하랴하는한마되로 그것은果然韓君의것이엿고나하고 是非는끗을막은것갓다 그러나이제韓君이 一九二三年十二月作이라 하는그것은 虹波君의昨年度夏期講習帳에긋든것이라고 말한데對한구차한 辯明에不過하게밧게는아니들닌다 이제日文의原作者?인지 그야말로오히려韓君의그것을譯한.사람인지는모르나日文으로쓴그사람이 萬若一九二三年十二月 以前에發表한것이라면 좀말이길어지는듯하나韓君은무엇이라고 할런인가

韓君은그童謠를쓰게된動機를느려노코 구태여飜譯을아니쓰라한것이너무도 日文과이상하게도갓태서 社會여러분에게誤解나가지지안나하야 由來를大강말한所以입니다 라고原作이라는것을써노코 크게辯明에힘썻다 또그러나그에바람이조금식불기는하엿지만 불결이원만한바람은아니엿다 바람이부러거워지군한다는것은原作을못칠뻐말에궁해서 그러잡어넘은것이라고 하엿다말에궁해서집어넛다는것이엇거면 그러케日文과도똑갓흘수가잇슬가? 必然코日文이 韓君의그것을譯한것이아닐진대는……어듸까지든지韓君의 創作이거든그런驗한말을쓰지말고 보담더明瞭히말하라

너무도장황하니이에긋치고긋호로 韓君의말에詩에飜譯이란大膽할것인지? 나는그말부터의심하기를마지안는다 라는말에한마듸하고자한다

아!韓君아이무슨文藝에沒交涉한말이냐 그러면詩를譯하는사람들은 全部自己의詩를베르렌이나 하이네가지은것이라고내여논다는말인가 그말한마되가우리가韓君에게 企待하든바藝術的素質과人格에 얼마나落望을주는말이냐 아마도그말은소곰쟁이에對하야 韓君이너무도辯明하기에애쓴 結果로정든에잡고대갓흔말을 한것갓다못호로 이번소곰쟁이가남에以後는엔번하게 남의作品을盜賊하거나譯한것을 創作이라고世上에내여놋는者에게굳고 크다란鋼針한대式 준것을깃버한다

◇巴里에서開城까지◇(19)

香港을것처上海에
상해는난장판이다

金在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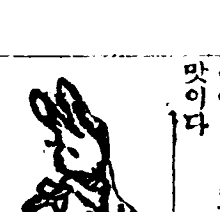
바람을타고불녀오는英人의곡호소래白晝에傍若無人이라 이것어다지나간世紀에全盛을極하든 領土的侵略主義遺物이다 洗練하고潤色된感이不無하다 內容을알고보면形式的進化뿐이지 侵略主義에는何等實質的變化를吾人이볼수업다 大砲소래는 적어진대신에資本이라는 怪物이國境을不關하고 行步가正히莫言이라 이놈이단이면서 萬衆의피를빨고自由를빼앗고 人權을사고팔고 잘못하고도 칭찬밧고 잘한놈의목을비고도 無事하고 못할짓다하고도 잘못한일하나도업고 個人으로도 資本만잇스면은 無冠한채로 萬衆의우에 君臨하는 여덩이世上이되여잇다

國家主義 資本主義에 適當한장회를밧는 여러는中國이다 일즉이 그張本國이 國權을 滿州하고 接觸이만나흔中國은 그들을비위하기로 急先鋒이되려는 觀이잇슴을吾人이본다 特히香港에와서그것을볼다 廣東이나香港서는西洋人排斥 西洋物排斥 貿易運動이組織的으로進行하기를 年이남는다는 風聞이니 이와갓흔團結運動은 中國有史以來도튼일이다

香港에드리오니 閑散하기짝이업다 그큰港口가 김숙잔다 碇泊해잇는汽船은도넷개되지를아니하고 石炭이나 飲料水갓흔것도 勞働者가업서서 제대로供給을밧지못하는눈치엿다 저녁아홉時에香港을떠나서上海를向한다이번航路間은意外에더위서著實한苦生을한다滿二晝夜半이걸여二十五日午前十一時에上海楊樹浦埠頭에닷을주니馬[illegible]관을떠난지二十五個日이요지나온航程이凡九千七百哩我里로略萬里라 神戶에서下陸하려든計劃을고처서鐵道便으로北上하기로한다

行裝을거두어들고배에서내릴때에吾人은섭섭한情을禁키가어려웟다 사람은아모래도情的生物이라원수가치밉든者도죽는것을보면은아차하는것이사람의情이어든 거치든바다우에三十五日동안運命을갓치하고오든배엿다 日常에는몰르겟더니막상離別을하게되니구석구석마다情이듬어慇懃히섭섭한것이여다 上海! 七年前에한겨울을지내든記憶만흔上海에를또다시오게된다 情이못흔며살기도조흔데요실키로만마음이가면하두잇기만도멀미가나는데다여기를드러오면客主집房안에하루커녀올드새는感이잇다 異邦손님들이제각기제地方의氣質,方語,趣味,慣習等을가지고한房안에들어안저서로쉬리異常해하는그맛이다

동화



보기드문총각(二)

金泰午

『자-여긔엿습니다 이것바드시구려!펴고달렷지요-』이런게말하고

『응-응그래네가또졋구나약죽한것을 다가저왓서! 그래야지 째무던한놈이로군……』

그도역시혼자서말하고술병을든후에 단번에다- 마시엿습니다총각은 대단술이취하여 얼골이새빨갓케되여세상이돈짝만하뵈임니다

그리고그얼골에는땀이흘러내립니다얼마아니되여또『에헴-』하고기침을하드니또시작을햇습니다

『그러면또해보십시다 이번에는내가이기지요 꼭약속대로 합시다네……』

『응-그러고말고…… 하다뿐인가』

역시자문자답을하고데이회싸홍이시작되엿습니다이번에는한참두다보니 총각이그만이기엿습니다총각은깃붐에넘치여그넓관가치생긴손벽을치며장긔판을억개에둘너메고덩실덩실춤을추며깃버날뛰엿습니다또술을한잔마시고 일층흥치가나서 두손을좌우로번니우고 손과발이 한꺼번에장단을 마치여 미친드시날뛰는모양은 참말장관이엿습니다

그리고 총각은 춤을추며보퉁이로 장긔판을 다-싼후에억개에둘러메고동리로드러갓습니다

그동리에 막드러가노라니 한커-다란우물(井)이잇섯습니다

그리고 그우물겻테서 물동이에물을 길러니고가는 한처녀가잇섯습니다그런데그총각은

『올타올타 네게안해를 주고말고……』하면서 또혼자서중얼거리고이제는춤도 추지안코 점잔허그처녀의겻흐로 살금살금 거러갑니다처녀는

『발서당신이 오십닛가에그머니엇재서 그러케 빨니도오시오 대단 피곤하시지요』이러케거침업시말을하고 그총각의 손을붓잡고자긔집으로 드러 갓습니다

총각은

『이것이꿈인가……』하고무어라고 말도못하고 그만살금살금 따라갈뿐 이엿섯습니다

그리고속으로『내일을 엇더케아는가……』할따름임니다 그새악싸는자긔의 말나오는대로 그커무어라고 중얼거리며 깃붐이넘치어 가치집으로 도라왓습니다

집에니르즉 한-어머니 가튼사람이 이섯습니다 이어머니는 자긔따님의 말을듯고 깃버하며 자긔아들이나 맛나는것 처럼반가워하엿습니다 그리고 얼마아니되여 크게잔치를 베푸럿습니다그리고 그총각은 그집주인이 되여잘살엇답니다-끗-

◇新刊紹介◇

▲新發明(第貳號)新發明에數十種日本文定價金五十錢京城府朝鮮總督府商品陳列館內朝鮮發明協會

丹精의마음에쏫은핀다

핀香菊의美는平日의丹精으로부터……그쏫과美를다투는貴婦人이야말로恒常쏫치지안코中將湯愛用하는健康者임니다

小春日和에도
마음놀수업습니다

俗에小春日和라고하야따뜻한날이잇습니다、이러한때에放心을하면봄이冷하야婦人特有의、快한病을惹起하기쉽습니다、이로부터는不絕히冷症의豫防에注意가必要합니다、반듯이補血體溫하는中將湯을쏫치지말고愛用하시기를바람니다

中將湯(중장탕)

主治効能
子宮病、血道、帶下症、히스테리ー
月經不順、下腹痛、逆上、頭痛
腰痛、肩凝、腰足冷症、不眠症
浮腫、痔、産前産後、惡阻

定價	
三日分	五十錢
七日分	一圓
十五日分	二圓
廿三日分	三圓
四十日分	五圓
八十五日分	十圓

本舖 津村順天堂
本店 東京日本橋
支店 大阪[illegible]

新學年開始

早稻田 中學講義

最も信用あり
最も正則なる
ワセダの講義錄で立身成功の基をお造りなさい。

(見本送呈)
ハガキで申込んで下さい

中學校の全科目は勿論、時代に適切な公民教育實業教育までも授けます。講義は立派な先生が書いたやさしい深切なもので、自修讀本や附錄雜誌が添へてあるばかりでなく、他でマネの出來ない自修方法が講じてありますから、完全に中學卒業の力がつき、專檢高檢の受驗準備にもなります。

每月二回發行・二ケ年卒業
學費月一圓十錢・一册八十頁

申込所
東京 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電話牛込[illegible]

果樹苗木
說明定價表進呈
種類保證苗木優良
岡山縣赤磐郡萬富局區內 小林園

서울안에서本報를購讀하시랴면
京城府堅志洞 東亞日報京城販賣部로
電話光化門七三○番

明治メリーミルク(메리밀크)
國產의權威로……
榮養價에豊富한本品을
新時代의어머님들에게……
뵈타민의始祖鈴木博士推奬
明治製菓株式會社

明正校生本社見學 慶南東萊郡北面明正學校五、六學年生五十五名은同校敎員尹炳仁、梁泳九兩氏의引率下에京城外지修學旅行을왓든바 再昨二十五日午後一時에本社를見學하엿습니다(寫眞은同團一同)

…五十二時에閉會하엿다더라 ◇任員 ▲會長金鎬璉 ▲副會長崔鳳敏 ▲總務金昌日、李福鈞 ▲書記金成鍊、林容憲 ▲會計高泰郁、田時恒(江界)

春風秋雨十九歲에 最後運命이在邇
春川培英校廢止說

春川郡新北面泉田里에잇는私立培英學校는春風秋雨十九星霜의長久한歷史를가진當地唯一한私立敎育機關으로써그동안幾多의艱苦와波瀾을거듭하야오면서도戰戰兢兢하야育英事業에不少한貢獻을싸아오든중近年에이르러서는官敎授補少의關係로因하야더욱經營難에빠지게되여最近에이르러는더욱悲運에빠저잇는터임으로一般社會에서는經營者의無誠意함을非難하여오든中얼마전에同校校長大綱萬氏로부터該校職員에게明年三月末까지廢校될것을言責하엿슴으로同校職員들은目下秘密裡에서善後策을講究하는모양이나畢竟은廢止될수밧게업는形便이라는데地理와人口上으로보와普通學校一個가依當히잇서야할同新北面인터이나該培英學校가잇는關係로于今엇一般面民으로서의對策이업섯스며또當局에서도아즉까지別로히考察이업서왓섯는데이에突然該校가廢止됨에따라現에在籍兒童近二百名은勿論이요明年新入學齡兒童에對한收容이큰問題거리가될모양이라는데將次復校又는普校設置運動이展開될는지도모른다더라(春川)

平壤醫專設置를 地方費로써計劃
◇政務總監의不承諾으로 道當局者의意見一致

旣報=平壤醫學專門學校設置問題에對하야平南道當局에서는總督府의諒解를엇고자各色으로努力中이나政務總監이머리를흔들고좀처럼承諾지아니하는모양임으로이에道當局에서는다시校舍建築費는地方費에서支出할意思를가지고境遇에따라서는開校初年度의經費까지도地方費에서支出할決心을보이면서醫專設置期成의運動하는中이라는데校舍建築費는大槪二十萬圓으로豫算하는모양이며寄附金이七八萬圓은募集될豫想이라는바殘金은繰越金으로서支出키로하야來年度豫算에編入하기로道幹部의意見은大槪一致된모양이라다라(平壤)

…府郡彰을加하엿스며當局의…도잇서大盛況을呈하는一方…를助키爲하야抽籤을行하야…에如左히當選이잇섯나더라(祥里)
二等 祥里鄭樂映
等 京城楊參

商務會總會 平北江界

平北江界商務會第十九回定期總會는去二十一日下午七時에基督敎會堂內에서會長金錫璉氏司會下에開催하엿는데今期決算의總財産은八千圓에達하고改選된任員은左와如하며諸般會務는任員會에一任하엿다더라

責任長老謝過로 問題는圓滿解決
아즉一部에서는將來를注目
馬山基督敎紛糾事件後聞

馬山基督敎會에서는牧師朴承明氏辭表撤回廣告問題로去二十日夜禮拜時에一場風波가일어나서敎人對敎會間큰紛糾가이러낫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其後를듯건데敎會紛糾問題의根本原因은朴牧師가敎會婦人들의經濟困難狀態를考察하고慶南婦人傳道聯合會에對하야贊成의誠意가薄弱하다하야該會幹部幾人과長老某派가共謀하야牧師를排斥하게된다는內容을推測한婦人들中에서는傳道會에脫退까지한會員이잇엇다하며今番此問題가爆發되자某方이老會에呼訴까지하기로하고그못안敎人側에서는長老某派의無理한勢力下에牧師를排斥하는內容黑幕을一方으로調査하는同時에去二十四日朝에는敎人側代表數人이

紛糾 問題의責任者인李某李某兩長老를訪問하고長老辭任을勸告한結果그날午前禮拜前에堂會를臨時로開催하고辭表를提出한後同夜禮拜를마친後共同處理會를開催하고敎人側에서堂會側에對한質問이일어나一時에는場內空氣가퍽險惡한緊張味를띈中에서內容黑幕을暴露식히고질할際에紛糾問題의責任長老側에서牧師辭表以來의廣告한것과自己들黨派勢力으로無理하게牧師를排斥하게된것은自己들의罪過로自覺하고謝過하며牧師辭免問題는永永取消하겟다는條件으로圓滿히平和의解決을告하고長老辭任도取消하엿다는바某敎人側의議에依하면今番解決은敎會現狀平和를維持하기爲하야皮相的解決에不過하고牧會某派의勢力으로敎會모든權利를無理히左右하는데憤慨한敎人들은同時든지모든罪狀을調査暴露식혀根本的改革을圖謀하는듯하다더라(馬山)

石峴講演準備 平北龍川

平北龍川郡東下面三仁洞石峴學會에서는地方青年의智識을啓發하기爲하야來三十日午後一時부터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左記와如히講演會를開催한다는데一般人士는多數參觀을바란다더라(楊市)

獨逸부터의選物談 獨逸經濟學士 李龍洽
未定 東下公普校長 四元猷助
農村改發에對하야 法學士 文鳳梧

仁川府協議員 逐鹿戰續報
青年側에又出馬

旣報=仁川府에서는協議員改選期를압헤두고有權者側으로부터逐鹿戰이猛烈하다함과立候補者動靜에對하야大略紹介한바어니와今番選擧戰에는朝鮮人側의活動이자못白熱化되는狀態로立候補者외그後動靜을探聞한바에依하면前日紹介한外에도새로히出馬되는新顔도有하다는데이압흐로엇더한變動이生길는지몰으거니와爲先아래와갓다더라(仁川)

▲前日紹介한中에張錫佑、鄭順澤、朱命基、孫亮漢、鄭世澤李彰儀諸氏는確實히活動을開始한貌樣이며▲金允福、金奎冕、金昌永、李東皓、金善奎諸氏는아즉도觀望中인態度로▲金相勳氏는青年側有望한候補이나氏는變情하게도前年度納稅額이規定額不足으로有權者가못된다하며▲그外에도새로히出馬한다는林泰陽氏說도有하나當者側으로서는此를否認한다하며▲安永淳氏는新進青年으로當地穀物小賣業組合의地盤과朝鮮人側精米業者側의背景을가젓슴은아니라內里有志의勸告도잇고또한自己亦是이에快諾하고活動하는中이라더라

圓滿解決
南鮮券番紛糾

馬山藝妓組合南鮮券番役員不法改選問題로兩派가分裂되여紛糾가이러낫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數日前에馬山警察署山本署長이雙方妓生을召喚하야여러가지로說諭한後藝妓組合은廢止하는同時에事務所를變更하고券番役員은許可數年中에서만選出케하되無關係者는一切干涉하지안토록條件으로雙方이圓滿히公協的解決을하엿다더라(馬山)

書畫展覽盛況
全北裡里에서

全北裡里에서는我書畵界에高名한湖南北畵에本格을둔白顚山人南嶽金眞煥氏의來到를機會로하야各方面의發起로書畫展覽會를去二十三日普校大講堂에서開催하엿는데當然한展覽은一大光明에作하야

巡廻探訪 (百九十)
風光이明媚 南國의情緒 (1)
朝鮮의第一島 濟州
一記者

濟州島는半島의極南端에在한朝鮮의一最大島嶼로서氣候가溫和하야南國의情緒가豊富하고風光이明媚하야南海中의樂園이라할만하다 中央에聳立한漢拏山은高가六千五百餘尺에達하야朝鮮의第二大山이오 往昔으로濟州의一大偉觀이다 濟州島의沿革을簡單히말하면古昔에高夫梁三神人이地中에서湧出하야開拓하고自號를耽羅라하야獨立國이엿스나 新羅時代에高厚、高淸이新羅에朝貢하매 星主、王子의爵을受하엿스며 高麗時에와서耽羅를收하야濟州라稱하고牧使判官을置하야統治하여오던바 李朝太宗十年에本島를三分하야 濟州大靜旌義의三郡을置하엿다가 大正三年에三郡을合同하야 濟州島라稱하고島司로서 行政의任에當케하엿다 渺茫한 太平洋中의島嶼라自古로絶島의感이 不無하엿스나于今에는 木浦釜山大阪方面과의 汽船出入이 連絡不絶하며 陸上에는自働車便이有하야交通이자못 便케되엿슬뿐아니라 電信電話電燈等物質文明의利器도近年에 設備되엿다 全島의面積은 百二十一方里인데東西가二百里 南北이百里며人口는昨年十二月末 現在二十餘萬名이니 其內譯은如左하다

一、戶數 四二、一九八戶
一、人口 二〇五、四七八人
朝鮮人 二〇四、三一五人
日本人 一、一〇五人
外國人 五九人

産業界

◇農業 本島는土地가瘠薄하고水田이殆無한데大地主가無하고擧皆自作農임으로貧富의差가懸隔하지아니하고따라서生活程度가均一하며小作爭議等은볼수도업다 耕地面積은田、〇四、〇三一町步畓八九五町步인데 每戶當二町二反步나되며 年年收穫高는大麥三十萬石 粟三十萬石 水陸稻三萬石 大小豆等雜穀三萬餘石計 一千餘萬貫에 達함으로小農民도그리困難치아니한 生計를圖謀할수잇다

◇商業 本島는交通不便의關係上 自然商業도 微微不振하더니近來 海陸交通機關의完備와 大阪直航路가開通된以來 濟州城內를中心으로 各地에商業이 漸次殷盛하야活氣를呈하고 南鮮의有數한商業地帶로屈指케되엿다 移出品은水産物을爲主로棉花、冠物、椎茸、牛皮、洋襪等인바 年額百萬圓內外에 達하며移入品은白米、麥粉、棉絲布、織物、石油其他雜貨等인바年額이 亦百餘萬圓에達한다고한다

◇工業 工業은아직幼稚하야目下自作自給의域을 脫치못하엿스나 農閑期를利用하야家庭工業으로小規模의醸造、朝鮮帽冠物(毛子、凉太、宕巾、網巾等)을製造하며 近來罐詰、貝釦、洋襪、酒類、繰綿等의工場도 設置되여그産額도不少하야 本島工業界의新紀元을作하엿다

◇水産業 四圍가茫茫한大海임으로 無盡藏의海産物이잇는富庫이다 海岸線에沿하야居住하는者는 擧皆漁業에從事함으로그産額이不少하며 本島名物인海上女王海女는 此等水産界에 莫大한功勞가有한者이다 이外에往時有名하엿던牧畜은 近間多少衰退한傾向이有하며棉作、林業等이年年發展함으로 濟州産業界의前途는實로有望하다

◇次回는金海◇

敎育界

本島는大陸과遠隔하야文物을읽길機會가적엇스나儒敎의旺盛과志士의來島로敎育이廣布되엿는바他地方에比하면讀書文筆이普及되엿다고할수잇다 近者己未運動以後京鄕을勿論하고 敎育熱이熾盛하엿슴에부터 村村各里에改良書堂을 設置아니한곳이無하엿다 그러나現下中學機關으로完全한것이 一個도無하야 一般島民의恨歎不已하는바이나 敎育普及狀況은 他地方에後하엿다아니할만큼發達되야 他地方留學生이數百名에達한다 이제數字로敎育機關과 生徒數를列記하면如左하다

	學校數	生徒數
公立農校	一	一三六人
公立普校	一三	三、四八五
私立普校	四	五八一
改良書堂	三七	二、一六三

◇寫眞說明◇ 濟州城內全景

地方論壇
面長整理說
特히選擧當局者에
堤川 一記者

一

現時地方制度組織이面을單位로하엿다 그러면單位는複數의基礎가되는것이다 卽面은行政官廳의基礎이다 制度上으로는 비록最下級에在하나 上部構造의堅實한土臺가되는것이며 政令發端의 原動力은되지못하나 結果作成의重要한 地位에잇슴은勿論이다 그럼으로 面當局者의手腕如何에在하야 모든政令의徹底를期할수잇스며 이로말미암아 一般民衆에게利害得失이係한것이다

二

如此히重要地位에處한面當局者의採用에對하야 往往其宜를失하는弊端이不無하니 此는正히面의權柄을執한 道郡의責任이重大하도다 民本主義下意上達地方自治를唱道하는 此現狀에잇서서 面長以下面職員外지라도 民衆의意思에適合한者를選擇치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卽公正한人物 敏活한手腕家를撰擇치아니하면아니된다 비록選擧는못할지언정 너무民衆意思에背馳되는人物이나 上官에게 阿諛苟安만일삼고外飾만하는 僞善者는이것을絶對로許하야서는아니될것이다 그런데近來道郡의面職員黜陟하는 方法을보면참알수업는일이만타 公正한人物보다도 僞善者를敏活한手腕家보다도 鈍濁한者를多用케되니 當局者는四目十耳를가젓는지外지가 疑問이라아니할수업다 비진에는조흔顧上만가지면 賢愚淸濁을가리지안코政丞判書가되여노흔 掌上이러니 至今은阿諛苟安만하면무엇이던지될수잇다는 態慾的이가업지만은 時代이니와 말할必要得勢하는時代이니 그와制度에支配를밧고 그외命令에服從케되니엇지 一言半句의말이업스라

三

郡守는郡守인만큼責任이重하다 施設도할수잇고 變更도할수잇다 그러나 그施設과그變更이民衆에게 不利를주면할수업다 그럼으로 內閣이改組되면 그政策에따라서地方官을異動식히는거와가치 郡守가新政을實施하자면 意思에맛지안는面長을改替하기 容或無怪이다 그러즉 如此한政策上에서公正한人物을登用하는것은 可한일이나 表面에政策을쓰고 內容으로親附者를要求하기爲하야 或은上官의親託을바다서 往往無條理한黜陟을하는일이잇다 今番本郡面長 大異動說에就하야도 여러가지曲折이잇는듯하다 勿論現在面長中에도不資格者는만타 이不資格者를處置하는것은 누구라反對할者잇스리오만은 現在某首云云의人物中에도相當한 사람도잇다하며 登用云云의人物中에도 그任에適치못한者를할수잇다한즉 이것이勿論風說에끗치고말면 어니와 萬一에事實化한다하면 것이다 面務는重하고 面長職은面民全體의 利害關係가김하야 經歷이豐富하고 才腕이相當한人物이아니면 面民全體의利益을 그대로犧牲에供하고말것이즉 그局에當하는者는此點에留意하야 一個人의私情이나 或은私利에拘碍치말고 公明正大한態度로 選擧에臨하기를企待하는바이다

吉會線終端港은 雄基說이有力
港灣協會委員會意見

港灣協會의吉會線終端港에關한特別委員會는二十三日午後一時日本倶樂部에開會하고水野會長以下各委員이出席하야安藝博士木原少將의兩委員으로부터詳細한調査報告를行한後海軍省水路部長米村少將으로부터水深의狀況을述하고淸津雄基羅津及西番浦의四終端港候補地에對하야比較研究하엿는데更히十二月頃에委員會를再開한後協議하자고決定하게되고六時散會하엿는데右各委員의意見은大體로左와如하더라

(一)陸上地域의廣大한點으로보면淸津雄基西番浦의順이오 (二)水面의廣大한點으로보면羅津雄基淸津의順이오 (三)用水量의點으로는雄基淸津西番浦의順인데大體當日은雄基羅津西番浦의順이라는意見이多하엿다 그리고工費의點은細

…穀業者倉庫業者의意見을聞한後에再研究를하게되엿더라

原谷勞夜開設 醴泉郡

虎鳴面原谷洞有志張大鉉、張俊、張昇德、張昌惠四氏는近洞勞働兒童을爲하야去七日부터原谷張氏齋室에서夜學을開始하엿다는데現在兒童이三十餘名에達한다더라(醴泉)

塔洞青年創立
廿二日에總會

咸南安邊郡鶴城面塔里에서는지난二十三日에塔洞青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엿든바尹台永氏의司會로開會한後宣言綱領規約通過와委員選擧가잇슨後來賓諸氏의祝辭로閉會하엿다더라(安邊)

◇綱領
一、我等은農村青年의敎養과訓練을目的함
一、我等은農民의利益을爲하야鬪爭함
◇委員 崔觀元外外八人

淳昌公普田訓導 生徒를毆打致傷
青年會와勞組에서警告

全北淳昌公立普通學校訓導田基魯氏는性質이매우조치못하야生徒를잘毆打한다고一般學父兄의非難이藉藉하다는데最近所聞에依하면지난十九日同校事務室內에서五學年生林先周의頭部를什杖으로몹시따려서큰傷處를나게하야淋漓한鮮血은傍人으로하여금目不忍見케되엿든바맛참엿헤잇든女訓導某氏가그光景을보고너머나非人道的行爲를嘆言한일이잇다하며얼마전에도四學年生崔鐘淳의뺨을함부로따려서耳聾하엿슴으로그의父兄인崔允學氏가크게憤慨하야卽時學校에外지달려가서넘어酷毒한짓을論駁한일이잇서서當地青年會와勞働組合에서는臨時委員會를열고嚴懲策을討議한結果前記田訓導에게警告를하는同時에改悛치아니하면모든非行을調査發表키로調査委員外지選定한일이잇섯다는데一般學父兄은또엇던學生에게그와갓흔蠻行을敢行할는지매우注目한다더라(淳昌)

青年演劇禁止
堤川警察

忠北堤川青年會에서는堤川郡畜牛品評會期를利用하야青年素人劇을開催하고一般市民及會員에게多少慰安을주는同時에社會의同情을어더서會의債務를報償코자하엿든바當地警察署로부터一般에게模範될만한青年으로劇갓흔것을하는것은조치못한일이라하야禁止하엿다더라(堤川)

災害地免稅
昌原郡에도調査

昌原郡管內大山面東面北面의本年水害에對하야地稅免否를調査코저隣接金海郡密陽郡當務者와妥協이잇섯는데道로부터橋本道理가出張하야收穫三割以下에對하야는檢查上免稅處分을하기로決定되엿슴으로昌原郡當務者數名은去二十日부터出張하야檢查를한다는데水害面積約五百町步地價二十一萬圓此稅額附加稅

嶺南地方

…를合하야略七千八百餘圓의目餘簿이나豫想된다더라(馬山)

東萊高普運動 慶南東萊高等普通學校에서는 去十七日에秋季運動會를 同校運動場에서 開催할豫定이엇더니運動場關係로 不得己二十四日로延期되엿든바 當日에이르러서는學父兄外多數의來賓으로 大盛況을呈하엿다더라(東萊)

●進永酒造增加 慶南進永及下界面一帶의今年度酒類製造는最大部分이濁酒이고其他若干의淸酒等이잇스나最少數로서이에從事하는人數는五十三人이오製造量은二千石인데稅金이四千三百五十圓이라하며此를昨年度에比較하면幾人의製造業者가增加하엿는同時에石數도이를因하야百石이增加하엿스며따라서稅金이二百五十圓假量이增加한貌樣이라더라(進永)

●申郡守送別宴 慶北尙州郡守申鉉求氏는來尙五個年에産業、敎育諸方面에郡民의幸福을爲하야힘닷지안는곳이업시盡力하야오든中今般各郡郡守異動에際하야慶北達城郡守로榮轉하게되엿슴으로當地私立尙明學院專門委員會에서는該學院을爲하야만흔努力을한申郡守를爲하야去二十日下午五時에張在瓚氏宅에서盛大한送別宴을開催하고主客이情別의情을나눈後同十時頃에無事히散會하엿다더라(尙州)

●居昌郡農會臨總 慶南居昌郡에서는지난二十日에郡農會第一回臨時總會를開催하엿다는데定刻이되자會長金泉漢氏司會下에會員을點名하니出席會員이三十名이오이어서議事를進行하매다음과가치議決되고同十二時에閉會하엿다더라(居昌)
◇決議
一、道農會通常議員選擧에對하야金泉漢氏與李緯兩氏가當選되다
二、郡農會財務規定制定의件
三、大正十五年度郡農會豫算更正의件

●陜川敎育研究會 伽倻山海印寺의名勝을一層도울는秋節을맛자陜川郡敎育會에서는修身農業研究會를海印寺에서開催한바道視學金相洪氏가參加하고敎育會員二十五人의出席으로充分한재료를제공하야토의하엿다더라(陜川)

●孝子褒賞式 金泉郡牙浦面大新洞尹節植(西)氏는七十四歲되는그의老母가大正十一年十月頃부터半身不遂라는모진病魔에걸녀手足을쓰지못하고病席에누엇는데尹氏는五年동안의긴歲月을하로가치病母의侍奉를바더구원한다는데이말을들은金泉郡鄕校에서는그의지극한孝誠을표창키위하야鍮器한벌을만들어牙浦面으로보내여지난二十二日午後二時에同面사무소에서面長成樂珪氏사회로褒賞授與式을거행하엿다는데일반은尹氏의효성을찬양불이한다더라(金泉)

●咸陽勞働會定總 咸陽勞働會에서는去二十一日에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咸陽)
◇決議
一、會館建築의件
一、小作爭議에關한件
一、組織改善에關한件
一、委員改選

●穀物組合總會 馬山穀物商組合에서는去二十三日下午四時부터該組合事務所內에서第八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米田組合長司會下에서理事關泳鶴氏의決算報告가잇슨後其他事項을討議하엿다는데今期事業은比較的好成績이라더라(馬山)

長壽山行 (七)
沙里院 李根浩

그러나어느刹那에나는다시소사오르는 悲哀를것잡을수가업다 人生이란넘어깃분날이맛나도 울어보는것가치勝景에叫하여웃이 沐浴한나는오히려가슴이울넝거리고슬퍼하야진다 아! 三千里半島나라에빗쳐잇는錦繡江山아너의姿態와늠늠한氣勢는녯날이나 只今이나조금도變함이업시 依舊하건마는世事는맷百번이나變하엿스며집히情은너를앳지로히 離別할때에눈물을흘닌 活界兒는 果然옛옛치못한가?무러보자 黃海長壽山아여 너는알리라이와가튼悲感한속에싸진나는 그럼은범관에서혼자헤매여보앗다 世上萬事를곰곰히生覺하야보니 나도이몸노릇이나하야 집흔山中에서佛經을외여도보고십지만 周圍의事情은나를許諾지안는다 이렴은이暗淚의키만 우리一行은아모依支드업는廣野에서 바람의불니는풀꼭이와가치 同誤하다가沙里院行汽車에몸을依托하든때는 그날午後四時五十分頃이엿다 다러나는客車안에는自己집을찻는旅客이分明하고 西山을넘는날아지해빗을따라온갓새(鳥)들은제집을찻건만 散之四方한우리의사랑하는 男女同胞는한번가고도라올줄을 웨모르는가? 우리一行은몸도아니엿건만 어와가튼슬품이自然이떠올낫다 그러고우리一行이上海驛에到着하야 信川郡에엇는九月山의에서맛나信川郡守를車中에歷史를듯게되는것도 偶然한일갓지는안은것갓다 그郡守는本來鳳山郡守로多年間行政에 만흔힘을써슬뿐아니라 沙里院河川工事에功이업지안라는것이다그러고行政當時에는筆者와도二三次意見衝突도잇섯스나그는兩方이모다郡民을爲하고沙里院市民의幸福을爲한자홈이엿다 그런외기에비록 公廨에서는間或맘성도잇섯스나 私廨에서는만흔사랑을주엇다 그런데그令監은 어데를가든지自己郡名物자랑을잘하는郡守이다「여보시오장수산구경잘하엿소? 九月山求景도오셔야합니다」라고하며빨리 廣告시작을하는것이다 九月山은李君信川溫泉과 九月山은筆者가 十四五歲當時에求景을한結果 歷史가잇는山이지만 名勝地로는長壽山을 따르지못한다는뜻으로 對答은안인즉十四五歲의 때로말하면 아모觀察力이不足한때이엿가 볼것업는山으로보아겟다는 意味로말을하다가아모래도빔서 보앗다는데는廣告의힘이적어저서 아모말업시 빙긋웃고말앗다 그러고는九月山이 朝鮮四大名山中에하나이되고 長壽山이라지를못하다니인다 구태여그럴라는데는어내인다 나亦是질듯자랑할것도 업고區區히辯明할必要도 업는것이다 이래서 暫時間은車中에서李郡守와名山자흠이 시작되엿다九月山이조흐면 엇더하고長壽山이낫부면엇더하라 만은 人生이란누구를 莫論하고自己가조라는것을 좋엿다고하는때는비로소反感이생기는것이 離치못할常情인그것이다 다못인것갓치 生覺난다 名山廣告에失敗를當한兵이話題를돌여가지고 다시溫泉廣告가또나온다 그야말로자랑할만한名物이다 信川은溫泉郡이라고하야도 過한말은안일것이다邑附近溫泉、達泉溫泉、李郡守가새로자랑하는 九月山石隱에서흐르는溫泉모두가 信川郡居住하는사람으로는 可히자랑거리의名物이다 엇잿든廣告라名物자랑이버터거슬때에 이와가必要하다고생각된다 나라나는汽車는 우리一行의西沙里院驛에러노아준다 는이미電光이반작 거리는밧

大高評을밧는 內服用六〇六號

橫痃(가래톳)、下疳(감창)을手術치안코治療함
멍우리와瘡氣업서지며
頑固한梅毒에도神妙함

橫痃(가래톳)과下疳(감창)으로梅毒一般의治療는現今六〇六號注射가第一有効한것으로專門家가使用하나此는往往副作用이잇슴으로시러하는사람이만은지라、또病質體質에依하야八、九回나하지안으면안됨으로自然莫大한費用을要하며又患者는秘密히治療코자하는外닭으로醫師를시려하는傾向이잇는지라此를遺憾으로生覺하야博士數津先生은羽根田醫學士와協力하야苦心硏究한結果內服六〇六號의發見한 セ－ビン은內服六〇六號라本劑는 天下의高評을바드며 淋疾、痔疾、淨血、諸種의新陳代謝를식이고、淸血、天下의高評을바드며其實効는博士諸氏로부터同病으로辛苦하는患者의詳細說明을바다아지못하고同病으로辛苦하는분은本藥書를請求하시요

最近에온禮狀의一例

頓首惠謝狀
敬頌 御貴堂日益興旺하시옵伏望耳 賞堂藥二劑로家妻에皮部에毒瘡을治하얏고全身瘡痛하와五年間에無하옵던胎氣가有하와五今二個月經過하와萬萬賀祝이외다
廣告에都爾洞만쓰시압소서
九月二十三日
昌城郡大楡洞 金〇〇 上

【藥價】 一號(輕症用)金五圓 二號(重症用)金拾圓 三號(猛烈症)金貳拾圓 試用分金貳圓 送料小包料金拾錢 送金은振替又는爲替로 代金引換小包로도取扱함
セ－ビン(세－빈)은一號二號三號三種이有하니病의程度에應하야服用하시요

大日本總發賣元
京城支店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府黃金町一丁目 電話本局一六六〇 振替京城一一二三八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駒込林町九電車道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道
滿洲支店 大連市岩代町大通
附屬醫院 本支店內에附屬醫院의設備가有하야病人이어게든지診察治療를하오니患者는來臨하시요

肛門病

十年難治의痔疾도 神奇하게낫는다……
東京肛門病院長 谷泉

世界人類의三分의一外지侵犯되엿다는痔疾은實로可恐할病이다 予는實驗의廣告부터나도아少하다 予는其病의初期에는그리큰苦痛이업슴으로남으로、되지못한方法으로治療하면그러치안는다。외서爲先그痔疾患者가放置한다、그런즉들라서病毒은無慮히容赦업시、骨肉에까지드러가서細胞의김흔속에까지퍼지게되여 惡性이거나良性이거나痔瘻脫肛이되며、或은內臟諸病을併發하야、悲慘한末路를當하는것이다。이와가치두려운痔疾을根本的으로治療하는 痔疾新藥이 有하니 危險한일이다。여기에推奬하는痔疾藥은子가東京肛門病院에서三十有餘年의經驗과最新學說을基礎로하야研製한것이다。十年難治의痔疾이라도 速効가有하다
說明書進呈 新聞名記入 全國藥店에有함

四海閃光

英軍艦沈沒 북태서양 영령「바미유다」에서 영길리 해군「金루쎈」와 편리안 논호 군함은 무풍으로 말미암아 이십오일에 침몰되야 장졸팔십육명이 익사(카나다면보)

不良小學生 대판동성구(大阪東成區) 비집에 밤이면 불을 켜노코 어린아희들이 야단을치는것을 이십사일 밤에 소관경관이 수색한바 십사세가량된 십여명의 불량소년들이 모혀 밤이면 그곳을 처소로하야 다니며 야단친일이 잇섯다고 자백하엿다는데 그들은 모다 소학생으로 활동사진에서 산적(山賊)을 흉내하고 그가치 산적생활을 한모양(대판면보)

鐵路手轢死 경동선영천역(慶東線永川驛)에 근무하는 차장일본인하야오와(車掌林野友和)(二)는 지난이십일일 오후네시경에 산낭하던 화물차가 지고나간후에 영천역부근에 이르던 장지라는 못가에서 총파의 복을 버서두고 빠저죽은것만을 발견하엿다는데 아즉 시톄는 찻지못해(영천)

旱潮에 火災 지난이십삼일 오후여섯시경에 황해도당련(黃海道長淵)읍 구면사무소에 불이낫섯는데 맛춤 바람이 뿔시불어 일시는 불길이 맹렬하엿스나 그집만 전소되엿고 원인은 걸인의 실화로 손해는 약 삼백원가량(당련)

青年이 飮毒 시내래평통(大平通)이뎌목이백팔십번디 서정환(徐正煥)(二七)은 재작이십사일오후한시삼십오분에 자택에서 양재물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세부란스」병원에 입원식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에는 관계가 업스리라하며 원인은 생활고

모히密賣團 시내래평통(大平通)이뎌목이백팔십오번디 김영진(金英鎭)(三六)은 지난이십삼일에 모루히네를팔다가 본뎡서에잡혀 모루히네여덜병을 압수당하고 련두자시내림뎡(林町)권모(權某)의집도 수색을당해

内外航空界

兩極探險家會議 공중의「로칼두」소약데집합목뎍으로 남북량극탐험가회의는 오는십일월구일부터 독일백림(伯林)에개최되리라는데 아메리카, 영국, 불란서, 로서아, 독일, 이태리, 노루웨이제국탐험가들은 특별안내를바덧다는바 그내용은 비행선으로 남북량극탐험조사에 대하야 십의회합이어라하며 동탐괴자의 일인 독일푸군대위「부란스」씨는 로서아쑐정유하야 주국과일보을 시찰하리라는데 독일과로서아량정부에서 그게획을 원조하리라더라(백림면보)

英軍冒險飛行 영국푸군비행선R이십삼호는 이십일일에 전투긔(戰鬪機)두대를 기낭(氣囊)밋헤다달고 이척륙피ー드노상공을 비행하다가 쓰어내엿든줄을 끈허버리여 두비행긔를 비행식혀 모험비행에 성공하야 세계비행긔를 놉내이게하엿다는데 동전투긔의 주량은 약이백칠십보관

新興水電工夫 二千餘名動搖?

◇됴선에처음될큰파업 原因은中國人夫排斥

무보=함남신흥군신흥면(新興郡新興面)에잇는 조선수뎐(朝鮮水電)공사에는 조선인 주국인 일본인로동자 약이천여명을 사용하는중이라는데 그중에 주국사람이 대다수를 뎜령하야 그들의 로동임금이 헐한것과 인내력이잇는관계로 말미아마 조선로동자와 일본로동자들이 일대협위를 늣기어 공긔는 매우험악하여가는동시 수일간에 총동맹파업이 이러날모양이라는데 한편으로 디방사람들은 공사에 관계하지 안키로 결속하엿슴으로 관계당사자는 총독부당국과 상의하여 부산(釜山)에서 일본으로가는 로동자를모아 전긔공사당에 보내엿스나 그러한 관계를아는 로동자들은 속속귀환함으로 회사측에서 대공패를당하야 선후책을 강구중이라더라

新平社員問題로 參禮市民大會

두가지를결의

지난십칠일오후아홉시경에 전주군삼례시장(全州郡參禮市場)옴석뎜에서 도박으로말경이되야 형평사원들이 남의집가구를 부신일이잇섯다는데 삼례시민유지들은 지난십구일 오후여덜시경에 시민대회를열고 집행위원십인을 선거하야 진상을조사키로 하엿고 대표위원은 지난이십사일에 또다시긴급위원회를열고 아래의 몃가지조건을 결의하엿다더라(삼례)

一、[illegible]을斷行할것

一、金錢融通을絶對不許할것

病婦投身

병을비관하고

황산금뎡(錦町)이백오십번디 서병국(徐丙國)의처박씨(朴氏)(五二)는 지난이십사일오후여섯시경에 한강데이인도교에서 그가 병을비관하고 그만투신 자살하엿다는데 검시후시톄는 본부에게 넘기엿다더라

後悔끗헤自殺

친혀파싸우고

지난이십사일령시경에 평양부외선교리(船橋里)뎡거장을떠나 사동(寺洞)으로향하야 떠나든긔차에 엇더한조선인남자한명이 뛰여들어 자살을하엿다는 급보를접하고 평양경찰서에서는 영칭경부보(永井警部補)가 현장에출동하야 시톄를 검시한결과 그는대동군추을미면림리(大同郡秋乙美面林里)칠백구십이번디 한용선(韓用善)(二?)인것이 판명되여 시톄는 그형되는 한창선(韓昌善)에게 인도하엿다는데 원인은 그날한용선이가 자긔안해일 세닭으로 그의형한창선과 밤시싸운일이잇는데 그것을후회하고 그가치 자살한것인듯하다더라(평양)

향토례찬내고을명물 (八〇)

落照의金波萬頃 春三月海棠花

—황해랍조우에금파가굼실굼실 백사장봄날에해당화떨기떨기—

◇長淵名物 明沙十里

우리장연은 조선데일서쪽을차지한고을로 자랑거리는여간만치안습니다 초현수백리안에는 모르리가업는화굴(花窟)이며 녯적신라사선(新羅四仙)이 놀고가신아랑포(阿郞浦)며 심청이가빠저죽은 림당수(臨塘水)며 요새선사품으로 세력조흔조개눈(貝柱)가튼것누구든지 멋만여면 궁금증이날만한명물이 썩만습니다

◇ 그러나 내가 자랑하라는것은 명사십리입니다 새가싸명사십리(明沙十里)가세상에 알게되여만은 사랑을밧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우리고을에잇는 진짜명사십리를 소개겸자랑하라합니다 읍에서서으로칠십리 만가면 몽금포(夢金浦)란곳이 잇스니 동북해안을연하야가는 고흰모래가 이산십리나깔녀잇스니 이곳이 명사십리외다 뒤으로는 장산에옹울한 송림을 둥지고압흐로는 창해에창창한 파도를면하여 실로 수벽사명

◇ 명사십리남으로는구미포(九美浦)가잇스니 일홈난해수욕장이 잇서매년녀름에는 조선내디는 물론동경상해 북경등디에서서양사람들이 오륙백명식 모혀드는데 이는이전에 아펜셀라씨와 가치우리반도를려행하든고 원두우목사가 리상뎍피서디로 광무(光武)오년에 한국정부로부터 일천구백구년간 무료로조차하여 지금은오십여채의 양관별장이잇답니다 이근처에서나오는 모래(硅砂)는 품질이조와서 동경유리회사에서 출장소를두고 대정칠년부터 매년수만돈이상을 긔선으로 일본각주로 실어다가 유리를만드는데 자긔네는삼백년간예산이라하나 실상무진장이라고합니다

◇ 모래산은 서편하날에 벗친붉은놀에반사되여 황금산이되지요 하날도붉고 물도붉고 모래도 붉어온우주는 황금세계가된답니다 이때에바다멀니하날가으로돗을달고 황금산을도라드는풍범선을보면 감만 한폭그림을보는듯하답니다 락조구경이 또한장관이지요 주홍빗갓흔해가 바다물에다음에 에는하날과 바다를 쓰려부은것갓지 안코황금불흠 한데붓처 요명사십리에 연다라멀리뵈는 (水和沙明)하고 풍광이명미한 절승이지요 양춘가절이되면 허연모래우에 새파란입이 돗고 그우에 샛빨간해당화가만발할 니다그리고 모래여울에힌갈매 기가울고 다라나는석양이되면

投稿繼續受理

내고을명물투고

◇投稿者 長淵 李斗奭

◇薄謝 本報購讀券 三個月分

◇……사진은장연명물의명사십리의화굴

自働車가顚覆 乘客二名負傷

전북남원군 산동면식련리(全北南原郡山東面植蓮里)에서 이일 오후세시경에 장수남원간 뎡기운전하는칠십팔호자동차가 뎐복되여 탓던순사아평량조(野水良助)박두현(朴斗鉉) 이명중 박두현은 중상을당하고 운뎐수 림홍북(林弘北)이 [illegible] 상하엿섯다더라(당흥)

井中에少女屍

삭구로막혀

지난이십삼일 오전열한시경에 마산부오동동(馬山府東洞)이백칠십오번디 배찬여(裵贊汝)의 집안우물에 어린계집아해의시톄가 떠잇는것을 그집사람이 발견하고 검시한바 그아해는 석만뎡(石町)일번디 김회진(金)의 차녀 순옥(順玉)(七)으로 판명되엿다더라(마산)

東京留學生飛檄

박렬문데와로동문데로비격

동경=박렬(朴烈)문데는갈수록 화메되는 중이데 동경에잇는 조선인 단데와련락하야「조선인대중에게격함」또는「재동경조선인학생에게선언」이라는 서선「비라」에 격렬한문구를써어노와 최근조선인고용의 임금문데와 그외거주에우등 여러가지문데로 선포하엿다하야 경시령특고과에서는 방금활동중이라더라

朴烈을取調

류택검사가

박렬사건으로 금촌소당의증거재[illegible] 관으로 류택수명판사(柳澤受命判事)가 천호를 취조한후 최근에 박렬의건강이 회복됨을 기다려 천엽형무소(千葉刑務所)로가서 취조에착수하게되엿다는데 이로써 박렬사건의 관계인물취조는 맛나고 동판사는 금월말에 관계서류를 정리하게되엿다더라(동경면보)

移徙拒絶로 冤恨품고放火

백뎡이라고이사못오게해서

평남맹산군봉인면팔봉리(平南孟山郡鳳仁面八峰里) 삼백팔십삼번디 형평사원방처백(方處伯)(三)과 그의형 방처관(方處官)(三)은 방화죄로 지난십팔일 맹산경찰서에잡히어 취조를 밧고잇는중이라는데 그들은 지난구일에 전긔집을 김치모(金致謨)란사람에게 사가지고 이사를하게되엿든바 그동리는 원래정(鄭)씨가 만히살아서 정씨동리라하야 동리가주동이되여가지고 백뎡(白丁)이 일백십칠번디정재환(鄭載桓)이 이정씨동리에 들어오는것은 정씨동리의 치소라하야 그이사를 방해배척한것에 원한을품고 동십일일 오후네시경에 형데가공모하고 전긔정재환의집에가서 아모도업슴을 긔화로 불을노하 집네채를 전소케한애닭에 그가치 잡힌것이라더라(평양)

平北各地罪囚들이 추워서控訴申立

잠시라도더운감방이그리워 【最近平壤覆審法院의頭痛】

십월에이르러 평양복심법원에는 신의주디방법원 관할구역에서 각디의동원지경으로부터 공소하여오는사건이 격증하엿다는데 이것은 해마다이는현상으로 평북각디에는 십월만되면 밤서어름이어러서 몹시추워진다하야 범죄인들은 감할수잇는데는 긔후가 따뜻한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야서 잠간동안이라도 추운디방형무소의 감방고생을 면하고저하는 까닭이라는데 그들은 이러한 약은꾀로 형무소를 옴기게된후에는 매개공소공판법뎡에서 공소를취하하는현상임으로 평양복심법원에서는 이로인하야 사건이일층복잡

自由廢業하려고 金泉妓生斷髮

세명이의로후

경북김천경찰서(金泉警察署)에서는 지난이십오일에 십팔구세식되여보이는 모랭의단발미인 세명을불너다가 장시간 취조를 하엿다는데 그들은 김천료리뎜 명월관(明月館)창귀 리선화(李仙花)(一九)와 김도향(金桃香)(二〇)과 장춘관(長春館) 김록주(金綠珠)(一九)로 공모하고 십삼일에 선산(善山)으로 놀러간다하고 각긔돈십원식을 그의주인에게 가주고 의일오전 네시오십분긔차로 떠나는 남행렬차를타고 왜관(倭舘)역에 내려서 각각그주인에게 자유폐업(自由廢業)을하겟다는 의미로 편지를하엿슴으로 포주들은 이편지를바다보고 즉시 사람을보내여 그들을다려갓슴으로 그들은 다시료리뎜으로 가지안코 엇더한관에 들어가서 세명이 사람보다 중하게녁이는 머리를싹거버렷다더라(김천)

妓生이窃盜開業

손님주머니를막러려

평양부내경재리(平壤府慶齋里)에잇는 방영월(方英月)(三五)은 과부재리(栗里)최모(崔某)의지갑에서 현금일백삼십원을 절취한것을 [illegible] 평양서에 잡혀 [illegible] 머리를깍는중이라더라(평양)

面會를拒絶

질문위원에게 아희때린역당이

함경선천탄역당(咸鏡線川灘驛長) 송강정일(松岡定一)이가 지난십구일에 그근처에서 한천(徐)[illegible] 금덕(金德)(一二)을 [illegible] 청년구락부(青年俱樂部)에서 긴급위원회를 열고 질문위원을 보내여 사실을질문하려고 하엿더니 역당이 거절함으로 지난이십삼일에 또위원회를 열고 질문위원 김락윤(金洛允) 김권일(金權一)외세사람을 선뎡하야 그날오후한시경에 동역당거장역실에가서 면회를청하엿스나 또한거절함으로 위원들은 매우분개한다더라(천탄)

◆天氣豫報◆ 晴後曇

昨日正午 [illegible]
昨日最低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〇番

二十七日(水曜)부터 所名畵週間

◎파라마운트從來그러스치喜劇 엄간망둥이 短篇

◎大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畵 正喜劇 絶世의美人 全八卷

美人마리・온・떠비스孃主演 오래동안그리윗든마리온・떠비스孃은당선되야 간만에그리운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되엿슴니다

北人氣名優토마스・뮤칸氏熱演 大活劇 아라스칸 全九卷 The Alaskan

北風이極寒한氷原曠野에 이러나는烈士의勇姿를?그여코보라

問題中 大映畵 다크라스海賊 十一卷

熱血劇 馬蹄千塵 全九卷 그여히不送封切

大豫告

保證付 責任保證

毛部ラベル 獸醫博士創製의 脫毛劑 一分間에玉肌

男女顔手足胸毛 其他身體中의 군털을脫毛하야 그의發生을豫防함

◆責任保證無効返金 ◆定價大二圓特大三圓 ◆說明書申込次第進呈

東京小石川表町四五號 鶴岡藥品部

開城 開城養兎園 紀念 二割引券 進呈

◎支分社設置에도紀念中으로設置費二割引을免除하오니地方人士男女는好機勿失速速히申込하시오 ◎電話一七九振替京城一四九二〇 電略요又는エン ◎案內書無代送呈함 但支分社는 [illegible]

農家精米界의大福音

元式精米臼가新發明되엿슴니다 本報第二千一百九十六號에 元容駿氏의 試驗實驗한精米臼를 紹介한바와갓치 多數를取하야 精米器를新發明하야 精米臼에附設하야 精米되는成績이優良함은 從來의精米하는 것보다 빠르고 一時間에 [illegible] 其特効를左記하오니 有志諸位는 速히 注文하심을 敬望함

一、機具의特長 構造堅固 方式簡單하야 使用上故障과毁損의慮가少無하고且耐久性이有함

二、使用의力率 主로牛力이나馬力을使用하며 米의數量은一時間에白米五斗(大斗)를精白함

三、價格의低廉 一基에付하야機具代와設置費를合하야金百五拾圓을受하되半額은先拂하고半額은設置後로함

(但運送費는注文者의負擔으로함)

京城府麻浦町一七七番地

元式公益社

忍術 氣合術 極意 附人心看破術 護身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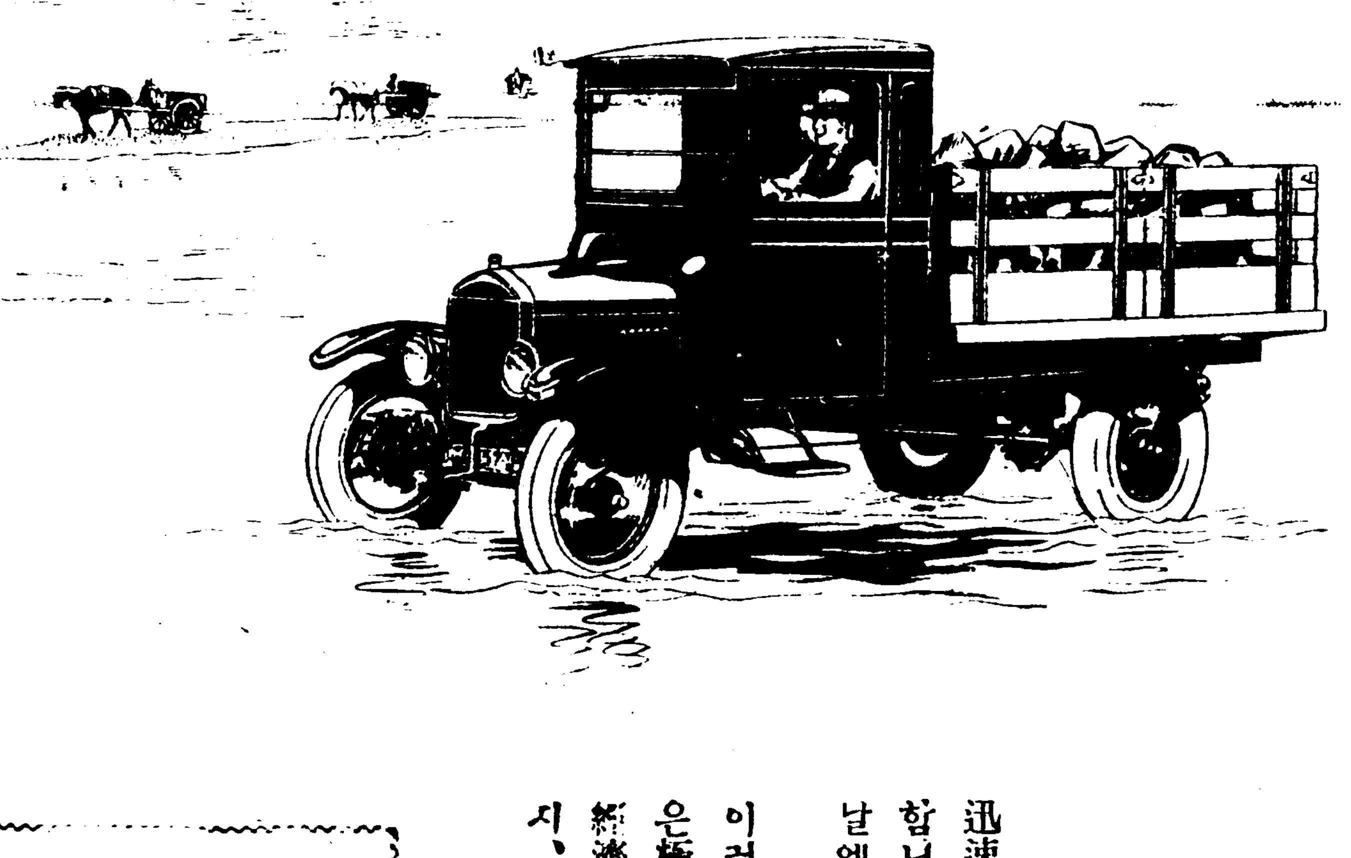
新刊 特價壹圓 送料八錢 代金引換은送料廿八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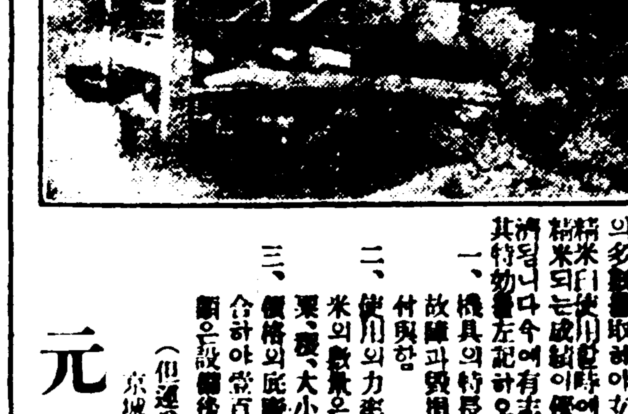
◎本書는忍術氣合術의大家 [illegible] 苦心研究의結果 녯적부터 秘法에 [illegible] 甲賀流의術 伊賀流의術 千變萬化의忍術 氣合術의秘訣秘法을 [illegible]

內容一般 ●九字의印 ●忍術의名人 ●遁身의術 [illegible]

大日本唯一의催眠術秘傳 催眠術 [illegible]

國民社





Ford 포ー드

迅速하고安全한「포ー드」貨物車

迅速하고、安全하고、信賴할만한輸送은四季동안必要합니다。特히營業하시는데는、雨雪이나리는치운겨울날에도、何等의故障이업시、運搬하서야합니다。

이러한데는、「포ー드」貨物車가理想的입니다、「엔진」은極寒에도容易하게發動되고、가벼웁게된構造인故로經濟的이고、그리고雜踏한市街에든지、地方隘路에든지、運轉은진실노自由自在입니다。

一噸추럭 새시 金千五百十五圓 (셀프、스탓터ー添附)

一噸추럭 새시 金千六百六十五圓

半噸컴머쉴 새시 金千四百三十圓 (셀프、스탓터ー及 풀문타이야添附)

以上京城又는釜山賣渡價

陳列室 京城鐘路四丁目壹番 電話光化門一三三五 全朝鮮에서대리점업을모집

포ー드特約販賣店 세일商會株式會社 京城竹添町一丁目七十五番地 電話光化門三六九・一六一九

日本포ー드自動車株式會社

水利組合은 土地兼併을 促進

小地主負擔過重으로轉賣

水利組合熱이勃興함에作하야資力이微弱한小地主는組合費의負荷에堪耐키어려운者或은又地價의漸次昂騰함을따라轉賣或은賣却하는者가續出하야本家외土地兼併은當然히增加하야三南地方은地價의昂騰으로轉賣가進行되야新規完成의水利組合을倂하면中央水利에集中하는等事가顯著히增加하엿다그러나其中全北地方의水利組合은地主가大體固定되야多少兼併하는傾向이업지안으나大正九年으로부터十四年約六個年間의一人當의所有段別에는큰異動이업다左記五組合에對하야보더라도益沃의三町五段六畝이든것이十四年에二町一段六畝에增加로示하엿슴에止하고臨益、沃溝兩郡의兩組合은도리혀減少되엿는바그平均은大正九年에一人當三町七段二畝이든것이大正十四年에四町七段으로九段七畝가增加하엿다는바該五組合에對하야보면如左

水利組合別	一人當所有段別		增減比較
沃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臨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古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益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印減)

米棉收穫豐作

市勢續落豫想

米國農務省의本年度棉花收穫豫想은七千五百萬「뻘」의未曾有의豐作이라고發表하엿슴으로또棉花市勢는暴落하리라期待되는바이미「뉴-욕」과「리버풀」의棉花取引所에서는市勢가「二十포인도」의激落을示하엿으며神戶의取引所에서는二十五「포인도」乃至二十二「포인도」의激落이엿다더라 (紐育二十五日發)

機運爛熟

取引所合倂 實現은突然?

京取仁取의合倂은機運이爛熟하야近日具體化하는氣勢이다即(一)仁川市民反對는仁取市場의非移轉說이解決되엿슴으로매우緩和되야此方面에考慮할必要가업게되엿슴 (二)合倂條件이問題로內海氏等이此點을懸念하야反對하엿스나同氏取締役就任으로此亦問題가되지안코多少波瀾이잇슬지라도此로因하야合倂이不成立치아니할것이요內海氏와內海秀川中作七郞氏의重役就任에對하야內海氏도條件付로어느程度까지讓步할듯 (三)合倂後社長은何人이就任할가重要問題나無事히決定될모양

果然이와가치되면그時에는在念合倂問題가進行하자고重役間에는考慮中이라더라

重役認可後說

一部에傳하는말을들으면合倂은總督府의新重役認可가잇서登記終了와同時에具體化하리라더라

生絲前途

大暴落難期 殖產局植田技手談

生絲는最近暴落한바그原因은만흐나그重要한原因이라고할것은最近政府가正貨現送再開에依하야金解禁을前提로한爲替市勢가急激히昂騰한것과米國의本年棉花가未曾有의大豐作으로棉花가大暴落한結果農家는四億弗以上의大損害를受하엿슴으로此等不景氣로因하야生絲需要가減少된外에日本製絲業者는大槪本年의生絲市勢가一千八百圓假量이되리라고推定하야原料繭을八九十掛로買入한까닭이다그러나生絲市勢가漸次下勢임으로製絲家는前途를樂觀하는形便이며日本도目下同時解禁을希望키어려운同時에絲價도이미低價임으로買氣가超하야今後生絲의大暴落이업슬리라고

木炭代用煉炭

來月부터出廻

總督府燃料研究所에서朝鮮炭을原料로하야廉價로使用할수잇는卵小形의木炭代用品의硏究가完成되야委託製造販賣하기로決定하엿는바該製品도十一月初부터一般市場에提供하기로되엿는데價格은石油箱入一杯量目七貫(約二返還)一圓이고特調는無煙으로火力이強하고火氣가오래고불도잘붓드며加之小形이기때문에便利하고火爐에도使用할수有하야非常히經濟的인木炭代用品임으로此가一般에普及하게되면家庭燃料界의革命을促進하리라더라

震災手形整理

◇根本案決定

大藏省은震災手形의整理에對하야手形所有銀行이大部分擔하고政府도亦是一億圓을限度로그整理를援助코자하는根本案을決定하엿다더라 (東京電)

棉業에注力하야局面을轉開코자橫濱은全然生絲大洪水의形便으로所謂今回의暴落은供給多過로因한바最近棉花暴落에對하야米國當事者는四百萬俵의回收와來年度의棉花植付段別을三割五分으로削減하는等여러가지의對應策을講究하야

鮮銀券續減少

資金需要微微로

鮮銀券은國庫關係와需資閑節接近으로漸增하야二十五日은八千五十八萬六千圓의發行이나此量이前年同月에比하면八百萬圓減少로一時前年과今年의差가二千萬圓外지接近하엿스며最近比較는아래와갓나 (單位千圓)

	今年	前年
九月二十一日	[illegible]	[illegible]
十月二十一日	[illegible]	[illegible]
同二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朝鮮은普通하야今年은資金需要稀薄으로滿洲等回收地方도不少하고朝鮮은增發되나群山、木浦、鎭南浦等이一千萬圓內外式增發程度로不振한다그러나滿鮮이來月에入하면一時增發되야前年同時와大差가업게되리라는豫想인바今年은特殊한景氣低物價低落으로前年同節의發行에達하면好況으로볼수잇다더라

朝鐵資金借入

三百五十萬圓

朝鮮鐵道株式會社에서는大阪野村證券株式會社에서年八分無擔保로二百五十萬圓의資金借入이二十日에成立된바此資金은目下工事中의咸南北線의工事費에充當하고五十萬圓은新規事業의豫備費로充當할터이라더라

鮮銀券은國庫關係와需資閑節接近에達하야規定數百三十個로前年의殘餘七十個를突破할이四十個이며二十五日外지架設料金拂込納入으로因한失權者를除함지라도二、三十個가不足한바此는遞信局의豫備에서補充하야抽籤치안코申請者全部希望대로되엿다더라

京城電話不足

京城內本年度電話架設希望者는

京城商議役員會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役員會를開하고第九回全鮮商業會議所聯合會에提出할提案을協議決定할터이라더라

銀行改善案과

民間側希望要點

目下開催中인日本金融制度調查會에서審議하는普通銀行制度에關한調查에對하야此準備委員會의決定案과民間臨時委員에서提出한普通銀行制度改善에關한具體的方策의差異는아래와갓더라(東京廿六日電)

【一】資本金最低額＝資本金을百萬圓으로하고勅令指定地에本店又는支店이잇는銀行은資本金을二百萬圓以上으로한다 民間側은二百萬圓以上으로할것은所者意見이合致하나그勅令指定地는大體人口十萬人以上의都市를標準으로하도록 民間側은希望하는일

【二】資本金法定增額猶豫期間＝資本金을百萬圓以上或은二百萬圓以上으로增額함에對하야準備委員會의決定案은

二年或은五年猶豫期間을置코자함에對하야民間側은五個年으로하야準備委員會案에는一人에對한貸附를提示한다 即民間側은準備委員會決定案보다도二個年의猶豫期間을延長코자하며但民間側은東京及大阪兩市에서今後設立할銀行은資本金五百萬圓以上이아니면此를認可치안토록希望함은旣設銀行의自衛手段으로볼일

【三】預金支拂準備＝預金支拂準備에對하야準備委員會案은此法定을避하고當業者自治的으로하야民間側은一任코자한에對하야民間側은大體아래와갓흔支拂準備를法定함은希望한다

(가)支拂準備額은預金總額에對하야百分十以上

(나)勅令으로써指定한곳에本店或은支店이잇는銀行에는百分의十二以上

(다)東京市又는大阪市에本店이잇는大銀行에도百分十五以上

【四】資金運用制限＝準備委員會案에는一人에對한貸附는拂込資本金과準備金의十分一以內或은銀行所有또는債權保로受入하는一會社株式은五分一以內로抵止코자하며民間側은

一會社總株式의五分一以內로함에對하야民間側意見은前者를低額五分一以內後者를同一히할일

【五】銀行檢查制度＝政府側은二個年에一回檢查코자함에對하야民間側에서도銀行檢查의頻繁은此를希望하나民間側은日本銀行으로하여금檢查케함을希望하며또普通銀行業務에從事한經驗이잇는사람을銀行檢查官으로採用함을希望한다

期米

前場低落 (仁川 廿六日)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〇·八六	三〇·四一
二節	三三·三〇	三〇·九六	三〇·三三
三節	三三·〇〇	三〇·九六	三〇·三〇
四節	—	三〇·八一	三〇·三五
五節	—	—	三〇·四六
六節	—	—	三〇·四〇
七節	—	—	三〇·三六
八節	三三·〇〇	—	三〇·四七
九節	—	三〇·八〇	三〇·四四
十節	—	三〇·八一	三〇·三三
前日前止	—	—	三〇·五八

昨後場三十圓四十六錢에續落하야止하엿는데今朝阪地初付가二十丁高로三十五圓六十六錢을報하엿스나當地는買氣旺盛하야因의猛烈買로三十圓四十一錢에도리혀五丁低로初付한後阪地二節惡化와共히玉의猛烈賣로三十錢에急落하다가①買物로三十五錢에強化하야四十錢을示하고三十九錢七錢에小刻하는際에阪地는六十錢六十二錢에相穀하다가忽然히五十二錢에低落되야報함으로買氣又復擡頭하야畢竟三十錢에再落하야二十二錢에止하니三十圓大台로結局制限될것갓다하야새로히買進하는便이屏生하는貌樣이다

後場反騰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三三·九〇	三〇·九九	三〇·三九
二節	—	—	三〇·三九
三節	—	三〇·八六	三〇·三八
四節	—	—	三〇·四〇
五節	—	—	三〇·四五
六節	三三·八六	—	三〇·五五
七節	—	—	三〇·四六
前日後止			

取組高 (單位石)

當三一〇〇	中八〇〇	先三二五〇〇	

帳入價格

當三三·二〇	中三〇·九〇	先三〇·四〇	

賣買高

當八〇〇	中一八〇〇	先二五〇〇〇	
合計			
本期總數			一〇〇八〇〇

各店倭合

中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當限採算觀

當地當限은二千九百石의取組가依然不動하야畢竟賣米與授로될貌樣인데今朝에는三十二圓에付價되엿스니此量을現下正米와比較採算하야볼必要가有하야◎三等合格米는只今三十二圓八九十錢의市價인데이것은勿論大正十五年度新米이다그러한데現當限與授에新米로서渡米할時는例의格上一圓을더밧게되니新米는枯渴하야在品이殆無한此際인즉畢竟受渡에는新米가其大部分을點케될것임으로只今付價는三十二圓이라도其實은三十三圓을밧게되는模樣이다

于今産地出廻가遲遲한것을可히推知할수잇스며따라서正米市場에在米가豐裕치못한程度를알게된다緣故로日來期米軟化에依하야正米의買氣가不振하면서도正米는比較的強硬하야劣品은八錢이良好한것도잇지만은品質乾燥가良好한것은九錢四五厘에도取引되다이것이將次新米가旺盛히出廻되기前一時現象이라하면足히介意할것이업슬것이나正米가커와가치品質狀態를免치못하는形便에잇서서는軟派로서도多少不安이잇슬것이다

米豆涂壘

◇…昨日來阪地惡化의原因은株式低落과朝鮮産地低落의影響이라고그리한데當限渡米가過剩이라는等宣傳을하는便도잇는貌樣이다

◇…朝鮮의稻作도제取하야보니外觀보다는鐵人이大端不足된다는데阪地軟派가朝鮮低落을金科玉條로내세우는것이奇現象이다

◇…今朝大阪當限이惡化하는것을보면軟派에서手當米調達이進捗된듯하나現在에도四萬內外의取組가남아잇스니그만한實米는勿論入手치못하엿슬것이다

◇…그러하면再明二十八日이大阪當限納會日인즉그동안에當限戰의一幕은免치못할듯

◇…當地當限은今朝三十二圓에賣買되엿스나此에新米로受渡할時는格上一圓이잇슨즉新租를사가지고調米하야渡米할수도잇겟는걸

大阪期米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五圓五十二錢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止價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五低
大阪	[illegible]	[illegible]	二高
東京	[illegible]	[illegible]	二六低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一〇低
下關	[illegible]	[illegible]	二低
桑名	[illegible]	[illegible]	高

各地延取引

釜山

穀良 賣買高 [illegible] 神力 [illegible]

	十一月中	十一月末	十二月中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 賣買高 [illegible] 神力 [illegible]

	十一月中	十一月末	十二月中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全羅三等 [illegible] 同四等 [illegible]

	十一月中	十一月末	十二月中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此間騰落은

新米出廻가左右

昨日無勢하던當地는今朝에三十錢外지惡化하야三十圓大臺가또한危殆한觀이有하엿다그러한데現下賣方主力으로잇는⊕가少하도動念치아니하고依然頑拒함으로買物이續出치못하면서居場面이忽然히底強해진다今般大阪의低落한것이다만朝鮮低落의影響이라할뿐이오特別한軟材가突發한것이아닌즉當地가이곳에서落調가抵止되야다시底強한商狀을演케되며畢竟은또다시朝鮮低落一巡이라하야阪地亦落調가抵止될것이니當地가依然히強硬해지는것을通當의「모도리」現象으로볼수도업다그러하나此間의騰落强弱을左右하는것은新米出廻狀況에존在한데今後出廻가果如何

產地出廻遲遲

正米品貴狀態

日來鮮米出廻가若干잇기는하나그것은當川需要에消化되야버리고밋켜倉庫에들어갈餘暇이업는貌樣이다그러함으로現在仁川地方의狀況을볼지라도倉庫在高가合格米三百叺에不過한狀態이니

株式

前場一服 (京取 廿六日)

▲京取二十錢低▲大新十錢高▲鐘新一圓四十錢低

千遍一律閑散

今朝에阪地大新은九十五圓六十錢으로稍硬勢를示하엿스나伸惱味가만하當地는九十五圓五十錢付價後六十錢外지잇섯다가五圓三十錢大引이엿고鐘新은百四十四圓步調一日의下落가잇섯스며京取는二十八圓七十錢付價後八圓六十錢大引이엿다

新甫無味乾燥

昨日後場暴落은新甫에反撥을演出할兆이라하는觀測이잇섯스나今朝에는別로可觀할市勢가업시다만依然히悄氣滿滿의場面이엿다要컨대政府積極策에對한期待人氣가

後場崩落

▲京取十錢低▲大新二圓低▲鐘新三圓七十錢低

京取後場立會

一時半부터

旣報함과가치大阪後場立會時間變更을作하야京取에서도二十八日後場부터一時半의立會케되엿다

主要採取組高

◇京取(賣)大林七〇白井一〇〇洪一五〇正崎一一五〇古川二〇新田二七四〇定岡二〇金秀二五〇(買)洪一三〇金龍二〇〇田友六八〇成淸八〇新田一〇〇田道一八四〇南一八四〇白樂一四〇市川一〇四〇

◇大新(賣)大林五〇白井六〇洪五〇正崎一七三〇新田二一二七〇定岡八〇金秀三九〇白樂一七〇(買)金龍四四〇古川六三〇〇田友三〇成淸六〇田道一〇〇〇南二六三〇市川七一〇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久原 [illegible]

◇新東 [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京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新東減配說

今後關鍵?

不然하나今番의滅配에對하야는斷行手段이업슴으로一般은傍觀而已인此際에歡刺戟으로勢不得已下放을보하엿다

오래동안保勢圈內往來가거듭되야一般은그分岐如何를興味視하든바昨日後場에新東을비롯하야諸株가暴落을演出한原因을들으면

(一)新東株의五分減配豫想이傳하는일

(二)日清과日本製粉의合倂延期

(三)現政府의積極策에對한期待가만흐나鞦韆的行動이업슴으로嫌氣投物이出現하는일

等으로볼수잇다그러나七下分岐가어느程度外지持續할가함은豫斷키難할지라도今後局面의轉開는全然政府의政策如何에잇슬것이다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大阪短期諸株步調

◇大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久原 [illegible]

◇新東 [illegible]

前場賣買關係

◇京取八〇(賣)古川新田(買)南◇大新二二〇(賣)新田成淸(買)南市川◇鐘新一〇

短期算定及日步

株名	日步	算定	代引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六八〇枚
累計	二六八、八七〇枚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連取	[illegible]	日石	[illegible]
鮮紡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粗布 大極星 [illegible] 三星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山桃 [illegible] 三神山A [illegible] 天桃A [illegible] 金剛山 [illegible] 大驥 [illegible] 三管 [illegible] 變童 [illegible] 燈 [illegible] 貫人 [illegible]

▲綿絲 [illegible]

▲細布 扇面16 [illegible] 美女 [illegible] 飛犬13 [illegible] 鶯鳥 [illegible]

▲晒金布 金鼎 [illegible] 進軍 [illegible]

▲晒木綿 竹 [illegible] 票 [illegible]

大阪三品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前場 當限 一、五〇〇 先限 一、五〇五 現物武州格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數 五、〇一七枚 金額 一、九五〇、九二六圓

朝鮮銀行券 廿五日

發行高 八〇、五八六、〇五三圓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海外砂糖 廿六日着

玖瑪賓糖 三弗一六分三 爪哇糖八月限 二留一八分五 倫敦糖八月限 [illegible]

對外爲替 廿六日着

對英 二志 [illegible] 對米 四八弗二分一 上海 七六兩四分三 (朝鮮銀行建値)

海外經濟 廿六日着

倫敦銀塊	二四片十六分九
紐育銀塊	五二仙八分七
米綿	二十錢低
印綿	三十錢低
英米爲替	四弗八四仙四分一
스털링	一三八弗
아나콘다	四七弗四分一

仁川正米市勢

㊀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㊃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改良種	一斤	[illegible]
正租 在來種	一斤	[illegible]

麻衣太子 【下篇】

春園 作

丹谷 畵

「十七」

사랑은섧다 (九)

김술의말에 계영은 살작얼굴을붉히며

『서북한김성은 일흥으로들은법도하거니와 그댁이 본래네집과왈만한 사이가 아니어든네게말슴하시는것만 부질업는일이오』

하고 자리에안저버린다。

이말에 김술의기름진얼굴이 푸르락누르락하며 눈추리가 우흐로 올라간다。자긔와말한마듸하여보는것을 일생의 영광으로는알지언정 이하늘아래 자긔더러부질업는말한다고 할사람은 업슬것을 밋지못하엿다。

『서북한 김성을일흥으로들은법은하거니와』하든계영의낫빗과어조가 말할수업시 자긔를멸시하는듯하야 김술의 가슴人속은 빈객뒤집히는듯하엿다。

김술은 계영의압흐로 한걸음더들어가며、

『이바라、지금한말은정신잇서한말이냐、내가 누군줄을알고한말이냐。철업는어린계집이실

눈 김술의 칼 안한을 바더보고서야
알코제넘금을 배반하는 역적김칭의집칼이 무엇으로 되엇나시험하여보리라。시중 유렵의말이어보라!』할때에그소리는 하늘에오롤듯이 힘이잇고 눈에는불이번적이는듯하엿다。술풍속에안자던 사람들은 모다큰뵈낫고나하고 널어나서 무서워감히갓가지되는가하고 주먹에 땀을쥐고보고잇다。

김술은계영의 얼굴과 말에두려움이생긴드시 한거름 뒤로물러난다。이때에시월이 자긔를못돕엇던사람들의 팔목을 뿌리어입에피를 무치어가지고 뛰어가계영의압을 막아서며、

『허 못난놈!천장에를나가면쥐구멍만차자도 힘업는 부녀압헤서는호긔가 당당하고나!』

하고비꼉거렷다。이것은 작년가을에김술이 대장군이되어 진헌을막으러 나아갓다가 대야성밋헤군사를버리고 밤으로 도망하여온것을 가르친것이다。이말만

수로 한말이나。다시한번바로혀를 놀려보아라!』

하고소리를질럿다。

김술이계영아기압흐로 대드는것을보고 시월이 두팔을버리고 김술의압흘막아서며 뜨렷뜨렷한 소리로、

『비켜라! 아모리례법을모르는북방 오랑캐의종이기로 어느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놀리느냐。비켜라!』

하고 대든다。

김술이더욱노하야 주먹을들어시월의앱흘치며、

『요년!요년!』

하고벌벌떠니 김술을 뫼시는두사람이 달려들어 시월을 끌어낸다。시월이 아니끌리랴고몸부림을하며、

『어느놈이든지 우리대아기씨몸에 손가락하나만 대여보라、그놈의 간을씹어먹고야말리라』

하고자긔의팔을붓든 사람들의손을물어떼인다。

김술이허리에 찻던칼을 빼혀 두러메며、

『내서불한김성마마를 몰라보는년의목아지가 쇠로되엿는가 시험하리라』

하고계영을위협한다。

계영이 상긋웃고닐어나며、

『조흔말이로다 그칼로내목을 치라。천년신라의 우로를맛고도 오랑캐왕건의 개가 되어그발을

못이긔어 죽을지실지를물리 엇던친구하나의 목을 버힌것으로 유명하다。

과연김술은 칼을들어 시월을 치려하엿다。그러나김술의 칼이 빗치시월의목에떨어지기전에

『이놈아내몸둥이 맛부터보아라!』

하고지금까지 김술과함께 소나무시그늘에서 보고잇던 두젊은이가내달아 김술의뒤통수를 방맛이대가리가 쌔어지어라하고 내어갈겻다。

김술은칼을 던지고 영에걱구러지엇다。

社告

一、名稱 鎭海分局

一、位置 昌原郡鎭海面慶和洞

一、區域 鎭海面熊川面熊東面天加面

一、職氏名 分局長 朱柄和 總務兼記者 禹起波

右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馬山支局

右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삽기玆에社告함

會計兼記者 朴世洪

東亞日報 任實支局